

Arts Friend

-Arts, Your Arts!

3
2020
Vol. 232



Special Performance		Exhibitions & Arts Class		Arts & Story		Information	
기획공연 레베카	04	기획전시 올해의 작가 기증 작품전	08	피아노의 왕	16	3월 공연·전시가이드	37
		아트 클래스 가곡교실	14	호로 읽는 한국미술사 11 호생관 최복, 그 이름 영원히 사라지지 않으리!	18	공연일정	38
				커뮤니티 아트 1 커뮤니티 아트 매핑	22	전시일정	40
				박지운의 오페라와 인생 11 오페라 꽃이 피었습니다	26	울산지역 공연 & 전시 정보	42
				미학의 눈_작품해석과 감상 1 말레비치와 이콘, 미켈란젤로	28	유료회원 특별혜택	43
				뮤지컬 '웃는남자'	32	회원가입안내	44
						협약점 이용방법	45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	46



뮤지컬 '레베카'



권혜경작 '소꿉놀이'



뮤지컬 '웃는남자'



김연영작 '슬랙라인'

Arts Friend

With Ulsan Culture & Arts Center

월간 문화예술정보지
2020년 3월호 통권 232호

발행처 울산문화예술회관 울산 남구 번영로 200(달동)

발행인 울산문화예술회관장 금동엽

홈페이지 <http://ucac.ulsan.go.kr>

기획·편집 홍보마케팅팀 T.052) 226-8241~2

디자인·제작 시냇가에심은나무

Special Performance
기획공연

ORIGINAL PRODUCTION BY V&W VEREINIGTE BÜHNEN WIEN
a company of wienholding

완벽함을 넘어선 최고의 뮤지컬



DAS MUSICAL
레베카

A MUSICAL BY MICHAEL KUNZE & SYLVESTER LEVAY
DIRECTED BY ROBERT JOHANSON

REBECCA

2020.3.27(금)~29(일) 울산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문의 1566-9621 예매 인터파크, 클립서비스, 문화예술회관 주회 울산문화예술회관 부산문화회관 주연 울산광역시 극공연마루 제작 EMK

공연시간 금 19시 30분 / 토 14시, 19시 / 토 14시 관람시간 170분(인터미션 20분 포함) 관람연령 8세(초등학교)이상
티켓가 VIP석 150,000원 / R석 130,000원 / S석 90,000원 / A석 70,000원



ISSUE 1.

5번째 시즌으로 돌아오는 완벽을 넘어선 최고의 무대!
전세계 1천 9백만 명이 외친 그 이름 '레베카'!
한국 공연 총 동원 관객수 67만명, 객석 점유율 92%!!

한국, 오스트리아, 미국, 독일, 일본, 중국, 체코, 헝가리 등
총 12개 도시, 1천 9백만명을 열광시킨 그 이름 '레베카'!
한국 총 동원 관객수 67만명, 평균 객석 점유율 92%
5번째 시즌으로 돌아오는 초특급 흥행대작!

ISSUE 2.

스릴러의 거장 히치콕의 영화 <레베카> 모티브
감동적인 로맨스, 반전을 거듭하는 서스펜스, 강력한 킬링넘버
넘볼 수 없는 마스터피스 대작!

영국의 대표 작가 대프니 듀 모리에의 소설과
스릴러의 거장 알프레도 히치콕의 영화 <레베카> 모티브로 제작된 뮤지컬 <레베카>
원작을 뛰어넘는 뮤지컬의 탄생이라 불리며 전세계에서 사랑 받아온 마스터피스 대작!

ISSUE 3.

뮤지컬계 최강 콤비 미하엘 쿤체 & 실베스터 르베이
국내외 세계적인 스태프와 최정상 배우들의 향연!

'엘리자벳', '모차르트', '마리 앙투아네트' 등으로 전세계가 사랑하는 뮤지컬계 최강 콤비
대본 및 작사 미하엘 쿤체와 작곡가 실베스터 르베이를 비롯한
총괄프로듀서 엄홍현, 연출 로버트 요한슨, 음악감독 김문정 등 국내 외 최고의 스태프!

엄기준, 카이, 신성록, 신영숙, 옥주현, 알리 외
지난 시즌의 히어로들과 뉴 캐스팅으로 무장한 2020 레베카!



Special Performance
기획공연



작품소개

5번째 시즌으로 돌아오는 완벽을 넘어선 최고의 무대!
전세계 1천 9백 만 명이 외친 그 이름 ‘레베카’!
한국 공연 총 동원 관객수 67만명, 객석 점유율 92%!!

더 이상 수식어가 필요 없는 작품, 뮤지컬 ‘레베카’가 오는 3월 울산무대를 다시 한 번 찾는다.

뮤지컬 ‘레베카’는 2006년 오스트리아 비엔나 레이문드 극장에서 첫 선을 보인 이후 전세계 12개국, 총 10개 언어로 번역되어 공연된 초특급 흥행작으로 2019년까지 전세계에 동원된 관람객 수는 1천 9백 만 명에 달하며 공연 횟수만 2천회를 넘긴 초특급 스테디셀러 뮤지컬이다.

초연 당시 원작자인 미하엘 쿤체(Michael Kunze)와 실베스터 르베이(Sylvester Levay)로부터 “한국 무대가 세계 최고다”라는 극찬을 받은 ‘레베카’는 EMK뮤지컬컴퍼니만의 라이선스 방식인 한국 로컬라이징 프로덕션의 최고 흥행작이자 성공작이다.

2013년 한국 초연 당시 뮤지컬 계에 대단한 센세이션을 일으키며 흥행몰이한 ‘레베카’는 5주 연속 티켓예매율 1위, 제 7회 더뮤지컬어워즈 연출상을 비롯해 무대상, 조명상, 음향상 등 5개 핵심 부문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으며 말 그대로 뮤지컬 계를 집어삼켰다. 이후 2014, 2015, 2017년 공연까지 평균 92%를 웃도는 객석 점유율로 초미의 흥행작다운 행보를 보여왔다. 4번의 서울 공연과 총 15개 도시 3번의 지방 투어로 한국에서만 총 517회차, 총 67

만명이라는 경이로운 관람객수를 기록하며 전설을 쓰고 있다.

언론과 평단, 관객들의 만장일치에 가까운 호평을 얻고 원작자도 감탄하게 만든 뮤지컬 ‘레베카’의 한국공연은 작품 전체를 한국 정서에 맞게 업그레이드한 국내 스태프들의 숨은 노력과 열정이 이루어낸 성과이다. 뮤지컬 ‘레베카’는 변함없는 최고의 무대로 2020년, 다시 한 번 울산관객들을 감동시킬 것이다.



SYNOPSIS

불의의 사고로 아내 레베카를 잃고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 막심 드 윈터,
그는 몬테카를로 여행 중 우연히 ‘나’를 만나 사랑에 빠지게 된다.
행복한 결혼식을 올린 두 사람은 막심의 저택인 맨덜리에서 함께 생활하게 되는데...

맨덜리는 아름다웠지만 음산하고 기묘한 분위기를 풍기는 곳이기도 했다.

마치 죽은 레베카가 살아 숨 쉬고 있는 것처럼

맨덜리의 모든 것은 여전히 레베카에게 깊게 물들어 있고

집사 댄버스 부인은 시종일관 무표정을 유지하며 ‘나’에게 경계심을 드러낸다.

사랑하는 막심과의 행복한 삶을 꿈꾸던 ‘나’는 점점 위축되어 가고

오해가 쌓여 막심과의 관계도 위태로워진다.

‘나’가 자괴감에 빠져 괴로워할 때, 레베카의 보트와 시신이 우연히 발견되면서

상황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는데...

Casting Schedule

※ 캐스팅 스케줄은 제작사 및 배우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일	정	막심	댄버스	나 (I)	잭파벨	반호퍼	베아트리체	프랭크
3월 27일	금	7시 30분	신성록	신영숙	민경아	이창민	최혁주	이소유	홍경수
3월 28일	토	2시	카이	옥주현	이지혜	이창민	최혁주	류수화	박진우
		7시	엄기준	알리	박지연	이창민	최혁주	이소유	홍경수
3월 29일	일	2시	카이	옥주현	이지혜	이창민	최혁주	류수화	박진우



Memory(기억)
〈박선지作/2013년 11월의 작가〉



슬랙라인
〈김언영作/2014년 7월의 작가〉



벗어난
〈권유경作/2016년 8월의 작가〉



소꿈놀이
〈권혜경作/2016년 1~2월의 작가〉



휴식
〈김소리作/2017년 3~4월의 작가〉



그 사이에
〈김아름作/2019년 4~5월의 작가〉

올해의작가 기증 작품展

2013~19년 전체 참여작가 기증작품 3부로 나누어 연중 전시
지역 작가들의 작품을 재조명하여 울산사랑 자긍심 고취

울산문화예술회관은 「올해의 작가 개인전」에 참여한 작가들의 기증 작품으로 구성된 ‘올해의 작가 기증 작품전’을 연중 상설로 추진한다. 이번 전시는 울산 작가들의 작품을 재조명하고 참여 작가들의 참신함과 색다른 시선의 동시대 미술을 한 눈에 살펴 봄으로 지역 예술의 정체성 확보와 새로운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2월 21일부터 5월 30일까지 100일간 전시되는 I 부를 시작으로 6월 1일부터 8월 29일까지 II부, 9월 1일부터 12월 9일까지 III부로 나누어 진행되며 갤러리 씬에서 연중 상설전시로 진행된다.

「올해의 작가 개인전」이 시작된 이래 울산의 작가들이 44명 참여하였고, 2013년에 참여한 김필순, 조서인, 전미옥, 양희숙, 박선지, 하혜정 작가의 작품 6점과 2014년 참여한 윤은숙, 박태진, 김영진, 김이란, 김언영, 김재욱, 고동희, 이귀동, 한진숙, 박성란 작가의 작품 10점이 I 부로 전시되며, 2015년

참여한 한경선, 박주석, 이수정, 권유경, 연예리, 이상아, 박하늬, 안은경 작가의 작품 8점, 2016년 참여작가 권혜경, 황한선, 배자명, 이미영, 서유리, 장수은의 작품 6점으로 구성되어 총 14점이 II부로 전시된다.

III부에서는 2017년 참여작가 김소리, 곽은지, 이정빈, 김용규, 천유리 의 작품 5점, 2018년 참여작가 박빙, 박소현, 오소영, 엄상용, 홍차 작품 5점, 2019년 참여한 김아름, 안민환, 윤기동, 이아름 작가의 작품 4점으로 총 14점 전시 된다.

울산 작가들의 젊고 패기 있는 창작품을 재조명하고 이를 통해 울산예술의 미래를 가늠해 보는 전시인 만큼 울산 시민들의 많은 발걸음이 닿기를 바란다.

전시개요

전 시 명 올해의 작가 기증 작품전
기 간 2020. 2. 21.(금)~12. 9.(수), 290일간

I 부 전시	II부 전시	III부 전시
2. 21(금)~5. 30(토) 100일간	6. 1(월)~8. 29(토) 90일간	9. 1(화)~12. 9(수) 100일간

장 소 상설전시장 갤러리 씬
전시내용 참여작가 기증작품 총 44점(미술37, 사진5, 서예2)

구 분	계	I 부 전시	II부 전시	III부 전시
작 품 수	44점	16점 (미술12, 사진2, 서예2)	14점 (미술13, 사진1)	14점 (미술12, 사진2)
기증연도	-	2013 · 2014	2015 · 2016	2017 · 2018 · 2019

Exhibitions & Arts Clas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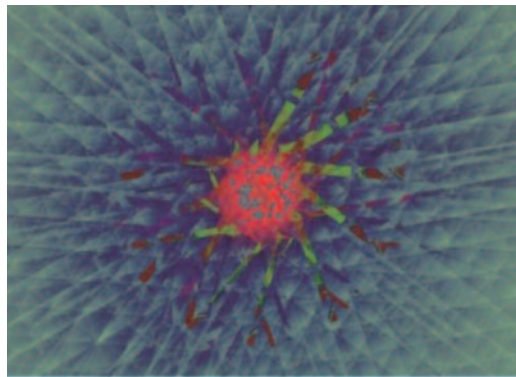
기획전시



Accompany
〈김용규作/2017년 9~10월의 작가〉



여름
〈홍차作/2018년 11~12월의 작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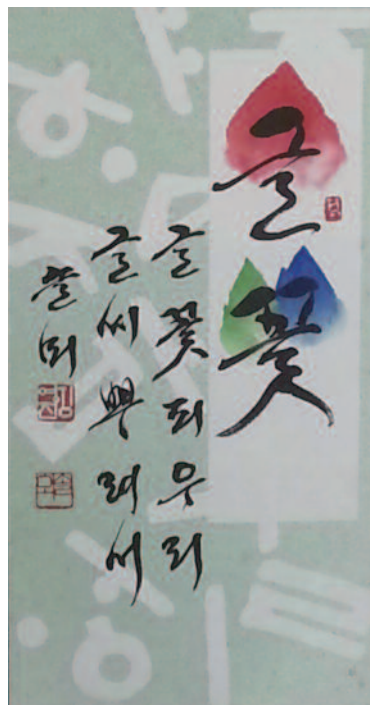
#4-53-19-10
〈윤기동作/2019년 8~9월의 작가〉



그림에 떡
〈이상아作/2015년 10월의 작가〉



88장식
〈배자명作/2016년 5~6월의 작가〉



글꽃
〈김영진作/2014년 4월의 작가〉

I
2. 21 (금) ~ 5. 30 (토) 100일간
상설전시장



2013 ▶



7월의 작가
김필순



8월의 작가
조서인



9월의 작가
전미옥



10월의 작가
양희숙



11월의 작가
박선지



12월의 작가
하혜정

2014 ▶



2월의 작가
윤은숙



3월의 작가
박태진



4월의 작가
김영진



5월의 작가
김이란



6월의 작가
김언영



8월의 작가
김재옥



9월의 작가
고동희



10월의 작가
이귀동



11월의 작가
한진숙



12월의 작가
박성란

김필순 KIM PIL SOON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미술학과 졸업
개인전 8회 및 다수 단체전 참여, 울산미술대전 대상 등 다수 입상

조서인 CHO SEO IN
울산대학교 동양학과 졸업
다수 단체전 참여 및 대한민국국화 대전 입선

전미옥 JEON MI OK
대구예술대학교 한국미술컨텐츠과 졸업
개인전 5회 및 다수 단체전 참여, 여성미술대전 특선 등 다수 입상

양희숙 YANG HEE SOOK
동국대학교 미술대학 졸업
개인전 3회 및 다수 단체전 참여, 대한민국 미술대전 입상

박선지 PARK SUN JI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미술학과 졸업
개인전 4회 및 다수 단체전 참여, 신라미술대전 특선 등 다수 입상

하혜정 HA HYE JUNG
울산대학교 미술대학 동양학과 및 동대학원 졸업
개인전 2회 및 다수 단체전 참여, 울산미술대전 특선

윤은숙 YOON EUN SOOK
신라대학교 미술학과 대학원 졸업
개인전 8회 및 다수 단체전 참여, 대한민국수채화대전 특별상

박태진 BAK TAE JIN
개인전 3회 및 다수 단체전 참여
매그넛과 함께하는 이비스 여름 워크샵 수료(갤러리 M)

김영진 KIM YEONG JIN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중문과 졸업
다수 단체전 참여 및 울산전국서예문인화대전 대상

김이란 KIM LEE RAN
개인전 4회 및 다수 단체전 참여

김언영 KIM AUN YOUNG
대구대학교 미술대학 회화과 졸업
개인전 4회 및 다수 단체전 참여, 울산한마음미술대전 대상

김재옥 KIM JAE EOG
원광대학교 서예학과 졸업
대한민국서예대전 특선1회, 입선 5회 등 다수 입상

고동희 GOH DONG HEE
개인전 5회 및 다수 단체전 참여
울산한마음미술대전 은상

이귀동 LEE QUI DONG
개인전 2회 및 다수 단체전 참여

한진숙 HAN JIN SUK
개인전 7회 및 다수 단체전 참여
국제라이온스 총재상 등 다수 입상

박성란 PARK SUNG RAN
울산대학교 동양학과 졸업
개인전 및 다수 단체전 참여, 대한민국국화대전 입선 등 다수 입상

II
6. 1(월)~8. 29(토) 90일간
상설전시장



2015 ▶



5월의 작가
한경선



6월의 작가
박주석



7월의 작가
이수정



8월의 작가
권유경



9월의 작가
연예리



10월의 작가
이상아



11월의 작가
박하늬



12월의 작가
안은경

2016 ▶



1~2월의 작가
권혜경



3~4월의 작가
황한선



5~6월의 작가
배자명



7~8월의 작가
이미영



9~10월의 작가
서유리



11~12월의 작가
장수은

한경선 HAN KYOUNG SUN
다수 단체전 참여
대한민국미술대전 서예부문 특선 등 다수 입상

박주석 PARK JOO SEOK
개인전 3회 및 다수 단체전 참여
온빛 사진상, 후지필름상 등 다수 입상

이수정 LEE SU JUNG
개인전 1회 및 다수 단체전 참여

권유경 KWON YOU KYOUNG
다수 단체전 및 아트페어 참여
대한민국 회화대전 특선 등 다수 입상

연예리 YEON YEA RI
단국대학교 동양학과 졸업
개인전 1회 및 다수 단체전 참여, 충청남도 미술대전 특선

이상아 LEE SANG A
울산대학교 미술대학 동양학과 졸업
개인전 1회 및 다수 단체전 참여, 대한민국 한국화대전 특선 등 다수 입상

박하늬 PARK HA NUI
울산대학교 미술대학 서양학과 졸업
단체전 다수 참여, 울산미술대전 대상 등 다수 입상

안은경 AN EUN KYOUNG
울산대학교 미술대학 동양학과 및 동대학원 졸업
개인전 5회 및 다수 단체전, ARPNY 뉴욕 레지던시 참여

권혜경 KWON HYE KYOUNG
동의대학교 서양학과 졸업
개인전 3회 및 다수 단체전, 아트페어 참여, 동경 국제미술 특상 등 다수 입상

황한선 HWANG HAN SUN
울산대학교 섬유디자인학과 졸업
개인전 1회 및 다수 단체전 참여, 울산미술대전 특선 등 다수 입상

배자명 BAE JA MYUNG
계명대학교 동양학과 및 울산대학교 대학원 미술학과 졸업
개인전 2회 및 다수 단체전 참여, 울산미술대전 특선 등 다수 입상

이미영 LEE MI YOUNG
부산대학교 예술대학원 미술학과 한국화전공
개인전 2회 및 다수 단체전 참여, 대한민국미술대전 입선

서유리 SEO YU RI
울산대학교 예술대학 서양학과 졸업
다수 단체전 및 아트페어 참여, ASYAAF 1부 선정작가

장수은 JANG SU EUN
울산대학교 미술대학 서양학과 졸업 및 동대학원 수료
개인전 1회 및 다수 단체전 참여, 전국대학미술공모전 특선

III
9. 1(월)~12. 9(수) 100일간
상설전시장



2017 ▶



3~4월의 작가
김소리



5~6월의 작가
곽은지



7~월의 작가
이정빈



9~10월의 작가
김용규



11~12월의 작가
천유리

2018 ▶



3~4월의 작가
박병



5~6월의 작가
오소영

2017 ▶



7~8월의 작가
박소현



9~10월의 작가
엄상용



11~12월의 작가
홍차

2019 ▶



4~5월의 작가
김아름



6~7월의 작가
안민환



8~9월의 작가
윤기동



10~11월의 작가
이아름

김소리 KIM SO RI
울산대학교 미술대학 동양학과 졸업
개인전 2회 및 다수 단체전 참여, 대한민국 한국화대전 입선

곽은지 KWAK EUN JI
홍익대학교 회화과 및 동 대학원 졸업
다수 단체전 및 아트페어 참여

이정빈 LEE JEONG BIN
다수 단체전 및 아트페어 참여

김용규 KIM YONG GYU
경성대학교 멀티미디어대학원 사진학과 졸업
개인전 8회 및 다수 단체전 참여

천유리 CHUN YOO RI
울산대학교 서양학과 졸업 및 동대학원 수료
다수 단체전 참여

박 빙 PARK BEING
개인전 9회 및 다수 단체전 참여
아시아프 히든 아티스트 선정, 모하창작스튜디오 입주작가

오소영 OH SO YOUNG
울산대학교 동양학과 및 동대학원 재학
개인전 2회 및 다수 단체전 참여

박소현 PARK SO HYUN
BFA, School of the Art Institute of Chicago
개인전 3회 및 다수 단체전 참여

엄상용 EOM SANG YONG
영남대학교 회화과 및 동대학원 회화과 수료
개인전 2회 및 다수 단체전 참여

홍 차 HONG CHA
개인전 15회 및 다수 단체전 참여
아트울산 우수작가상 수상

김아름 KIM AH REUM
홍익대학교 서양학과 및 동대학원 졸업
개인전 3회 및 단체전 다수 참여, 울산미술대전 입선 등 다수 입상

안민환 AHN MIN HWAN
울산대학교 조소과 및 성신여자대학교 조소과 대학원 졸업
개인전 4회 및 다수 단체전 참여, 태백 눈 조각 대회 동상

윤기동 YUN GI DONG
개인전 7회 및 다수 단체전, 아트페어 참여
남구자랑대회 전국사진공모전 대상

이아름 LEE AH REUM
울산대학교 서양학과 및 동대학원 졸업
개인전 9회 및 다수 단체전 참여, 울산미술대전 입선 등 다수 입상

“싱그러운 봄날,
노래를 통해
문화예술의 즐거움을 느끼고
이해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교육개요

과 목 명	아트클래스「가곡 교실」
추진기간	2020. 4. ~ 11월, 7개월간
시기/장소	매주 금요일, 10:30/문화예술회관 다목적홀
교육내용	가곡, 뮤지컬, 오페라 등 호흡과 발성 중심의 실습
지도강사	이인규(성악가)
모집인원	일반 시민 총 40명

아트 클래스「가곡 교실」



일상 속에서 노래와 친구가 되는 시간!

울산문화예술회관 아트 클래스 가곡 교실이 오는 4월부터 다목적홀에서 진행된다.

아트 클래스는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예술교육’으로 삶의 새로운 경험과 창의적인 사고확장을 위하여 문화예술의 다양한 장르를 시민 눈높이에 맞추어 보다 쉽고 친숙하게 느낄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다.

그 중 지난 해 신설되어 주부층을 비롯하여 중·장년층에게 학창시절의 향수를 불러일으켜 뜨거운 사랑을 받은 가곡 교실은 올해도 노래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지속시킬 예정으로 한국과 외국 가곡 등 곡에 맞는 올바른 발성과 호흡법을 중심으로 보고 듣는 노래가 아닌 직접 부르는 욕구를 충족시키며 누구나 부담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된다.

다양한 곡을 함께 부르고 그 시절의 추억을 되살리며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화시켜 긍정적인 에너지를 느낄 수 있는 시간으로 성악가 이인규가 함께 한다. 특히 올해는 지속성과 집중도를 높이기 위하여 4월부터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진행하며 시민들에게 여가 활동기회와 평생학습의 장르로서 발돋움할 것이다.

싱그러운 봄날, 노래를 통해 문화예술의 즐거움을 느끼고 이해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한다.



피아노의 왕

King

of

Piano

금동엽
울산문화예술회관 관장

피아노 브랜드 중 최고는 스타인웨이(Steinway)일 것이다. 2016년에 미국의 ABC레코드가 발매한 유명한 피아니스트 블라디미르 호로비츠(Blasdimir Horowits)의 CD레이블 타이틀은 킹 오보 피아노(King of Piano)이다. 이 타이틀은 호로비츠를 가리킬 수도 있겠지만 자세히 읽어보면 호로비츠가 연주하는 스타인웨이 피아노를 말하고 있다. 그러면서 스타인웨이 피아노는 피아니스트가 원하고 꿈꾸는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유일한 피아노라고 설명한다. 스타인웨이 피아노가 피아노의 왕인 것은 미국의 거의 모든 전문 연주자들이 이 피아노를 선택한데서도 알 수 있고, 세계 유수의 콘서트홀들이 모두 스타인웨이 피아노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울산문화예술회관에도 세 대가 있다.

스타인웨이(Steinway & Sons) 피아노의 창업주는 하인리히 엔겔하르트 슈타인베크(Heinrich Engelhard Steinweg)로서, 그는 1797년 독일의 하르츠(Harz) 산악지역의 볼프스하겐(Wolfshagen)에서 태어났다. 목재를 선별하는 일이나 목공일에 있어서 천부적인 소질을 갖고 있던 그는 원래 가구를 제작하던 장인이었다. 하지만 타고난 음악적 감각으로 악기 제작에도 관심을 가져, 1836년에 스스로 그랜드 피아노를 만든 후 피아노 제작 사업에 뛰어 들었다.

독일의 정치가 불안해지고 경제가 나빠지자 그는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 1850년 여름에, 다섯 아들 중 막내인 테오도르(Theodor)만 독일에 남겨둔 채, 네 아들들을 데리고 증기선인 헬렌 슬로만호를 타고 뉴욕으로 이민을 떠났다. 테오도르가 미국으로 이주하지 않은 이유는 그가 평소 미국을 불공평한 나라라고 생각했으며 참을 수 없는 뉴욕의 날씨와 세련되지 않은 음악회 청중들을 싫어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독일에 혼자 남은 테오도르는 스타인베크(Steinweg)라는 상표로 계속 피아노를 만들었다.

미국으로 이주한 후 스타인베크는 이름을 미국식인 헨리 스타인웨이(Henry Steinway)로 바꾸고 1853년에 맨하탄의 배릭 스트리트(Varick Street) 85번지에 아들과 함께 자기의 이름을 딴 스타인웨이 앤드 산스(Steinway & Sons)라는 피아노 회사를 세웠다. 그리고 처음 생산한 피아노에 483이라는 번호를 붙였다. 이는 그가 스타인웨이 피아노를 설립하기 전에 이미 482대의

피아노를 만들었었기 때문이다. 이 피아노는 뉴욕의 한 가정에 오백 달러에 팔렸으며, 현재는 뉴욕의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 전시되어 있다고 한다. 공장을 세운지 일 년 만에 늘어나는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스타인웨이는 워커 스트리트(Walker Street) 82번지에서 88번지에 이르는 토지에 더 큰 공장을 새로 지었다.

스타인웨이 피아노는 혁신적인 기법으로 이전의 피아노 제작 방식에 변화를 가져왔다. 저음현을 고음현과 교차시키는 교차현 방식(Over Strung Scale)을 고안하여 현이 차지하는 공간을 줄이고, 피아노현을 고정하는 프레임을 철골주조 방식으로 일체화 하여 피아노를 양산할 수 있었다. 교차현 방식이 나오기 전 까지 피아노의 현은 모두 한 방향으로 고정되어 선의 길이로 인해 지금의 피아노보다 길이가 길고 넓어 공간을 많이 차지하였다. 1860년에 이르러 스타인웨이 피아노가 생산하는 피아노는 최고급 피아노로서 그 명성을 얻기 시작했으며, 350명의 직원이 연간 천 팔백 대의 피아노를 생산할 정도로 사업규모가 커졌다.

1865년이 되자 테오도르도 끝내는 뉴욕으로 이주했다. 1871년에 헨리 스타인웨이가 사망하자 아들들인 테오도르와 윌리엄은 사업을 이어받아, 1875년에 런던에 전시장을 열었다. 그리고 1880년에 윌리엄은 뉴욕 퀸즈의 아스토리아(Astoria) 지역에 스타인웨이 빌리지를 지었다. 여기에는 지금까지도 사용하는 공장, 우체국, 공원, 직원들을 위한 사택들이 들어섰으며 나중에는 룽 아일랜드 시로 편입되었다. 같은 해 테오도르는 독일로 돌아가

함부르크에 새로운 피아노 공장을 설립했다. 이는 높은 유럽의 관세를 피하고 스타인웨이 피아노를 원하는 유럽의 고객들에게 더 가까운 곳에서 제품을 공급하고 위함이었다고 한다.

현재 스타인웨이 피아노는 뉴욕과 함부르크에 있는 두 개의 공장에서 생산되고 있다. 함부르크 공장에서는 미국 스타인웨이가사로부터 수입한 목재로 미국 공장의 제조방식을 그대로 따라 동일한 품질의 피아노를 제작하고 있다. 뉴욕 타임스의 기사에 의하면, 이미 펜더 기타와 로저스 드럼을 소유하고 있던 CBS방송국에서 1970년대와 1980년대에 스타인웨이 피아노사를 인수하여 운영 하였으나 피아노의 품질에는 차이가 없음을 재차 강조했다. 하지만 전문 연주자들 사이에는 그 차이를 두고 의견이 다른 경우가 많다. 많은 피아니스트들이 뉴욕에서 생산된 것에 비해 함부르크에서 생산된 것이 음량에 있어서 약간 작긴 하지만 좀 더 고급스럽고 따뜻한 소리를 낸다고 한다.

여러 번의 소유주가 바뀐 끝에 2013년에 스타인웨이 피아노는 헤지 펀드인 폴슨(Paulson & Co. Inc.)에게 팔렸다. 2019년 6월에 발행된 뉴욕 포스트에 의하면 폴슨은 배우인 로버트 드 니로에게 스타인웨이 피아노에 대한 공동투자를 제안하기도 했다. 로버트 드 니로는 2018년 1월에 마틴 스코세이지가 감독한 영화 ‘아이리시 맨’에서 프랭크 쉬런 역할을 맡아 스타인웨이 피아노 공장이 있는 뉴욕의 아스토리아 지역을 배경으로 영화를 촬영 했던 적이 있다.





최복 <설중귀려>
종이에 수묵, 21.5×62.5cm, 고려대학교박물관 소장

호로 읽는 한국미술사 11 | 이인숙
『석재 서병오 필묵에 정을 담다』 저자

호생관 최복, 그 이름 영원히 사라지지 않으리!

호생관

<설중귀려(雪中歸驢)>는 겨울산수이다. 흐린 하늘 가운데 부챗살의 세로 칸에 맞추어 ‘호생관(毫生館)’ 서명이 있다. 호생관은 최복의 여러 호 중 가장 널리 알려진 호이다. 최복은 만년에 이르러 ‘호생(毫生)’으로 집 이름을 붙였는데, 사람들이 무슨 뜻이냐고 물어보면 ‘오이호단작생애야(吾以毫端作生涯也)’, “내가 붓끝으로 살아가기 때문이오.”라고 대꾸했다는 말이 정조시대 의관(醫官)으로 대수장이었던 석농 김광국(1727-1797)이 최복의 <운산촌사도(雲山村畵圖)>에 붙인 발문으로 『석농화원(石農畵苑)』에 나온다. 호생은 “생계가 붓에 달려있다”고 해석하면 그림 그리는 것이 살아가는

수단이라는 자조적 의미가 되고, “붓으로 먹고 산다”고 보면 화업(畵業)을 전문적으로 여긴 화가로서의 자긍심을 엿볼 수 있다. 그런데 이 호생관은 중국에서 먼저 사용된 전례가 있다. 명나라 때 화가 정운봉(丁雲鵬, 1547-1621)에게 동기창(董其昌, 1555-1636)이 호생관이라는 인장을 선물했는데, 정운봉은 이 인장을 특의작에만 찍었다고 한다. 이때 호생은 “붓으로 창조한다.”, “붓이 생동한다.”는 의미이다. 최복이 이를 알고 이 호를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최복은 『고씨화보』, 『당시화보』, 『개자원화전』 등 중국에서 들어온 화보(畵譜)를 익히고 활용하며 그림을 그렸는데, 『당시화보』 밑그림을 그린 화가 중 한 명이 정운봉이기 때문이다. 뜻이 뭐냐고 물어 보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특이한 호였던 것을 보면 호생이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면서 화가로서의 자부심을 담아

호생관이라는 호를 사용했을 것 같다.

<설중귀려>는 하늘을 어둑하게 먹으로 바림하고 산과 집은 윤곽선으로 형태를 잡으며 희게 남겨 설경임을 나타냈다. 찬 겨울 숲인 한림(寒林)산수는 중국 북송 때부터 그려졌다. 겨울산수는 메마르고 삼엄한 나뭇가지 뿐 아니라 깨끗하고 차가운 눈과 추위 때문에 저절로 세상과 멀어지는 느낌이 있어 고인일사(高人逸士)의 뜻을 담기 적합했다. 설경은 겨울에만 볼 수 있는 특유의 경관이다. 수묵화에서 눈 그리는 법은 차지위설(借地爲雪), 곧 종이나 비단의 ‘바탕을 그대로 남겨서 눈으로 삼는’ 유백법(留白法)을 가장 격조 있게 여겼고, 불투명 흰색 물감인 호분을 산봉우리에 칠하기도 하고, 호분을 통겨내 눈발이 날리는 광경을 나타 내기도 했다. 바람에 날리는 눈인 풍설(風雪), 강 위에 내리는 눈인 강설(江雪), 밤에 내리는 야설(夜雪), 봄눈인 춘설(春雪), 저물녘에 내리는 모설(暮雪), 눈 개인 모습인 제설(霽雪) 다양한 설경이 그려졌다. 설경은 계절의 변화를 주제로 시리즈로 그려지는 사계산수, 사시산수에 항상 들어간다. 8폭일 때는 사시팔경(四時八景)이 되어 초동(初冬), 만동(晩冬) 식으로 한 계절을 둘로 나눈다. 관동팔경처럼 특정지역의 명승을 뽑아 그리는 경우에도 계절이 결합되었고, 보통의 산수병풍에도 설경을 넣어 끝 폭을 삼는 예가 많다. 사시산수는 자연을 씨줄로, 계절을 날줄로 하여 시공을 함께 직조한 회화이다. 자연의 네 계절을 산수로 어떻게 인식해 어떤 경관으로 그릴 것 인가를 고민한 화론이 일찍이 나왔다. 북송 때 산수 화론인 『임천고치(林泉高致)』(1117년)에서 겨울산수를 이미지화 한 몇 줄 뽑아보면 이렇다.

자연의 운기(雲氣)는 네 계절이 같지 않아
겨울에는 어둑어둑하고 침침하다.
자연의 연람(煙嵐)도 네 계절이 같지 않아
겨울산은 침침하니 쓸쓸하여 잠자는 듯하다.
겨울산은 어둑고 흐리며 가려지고 막힌듯하여
사람들 마음이 외롭고 쓸쓸해진다.

<설중귀려>는 해질녘 모설(暮雪)의 어둑한 풍경 속을 니귀 탄 한 남자가 산 아래 외딴 집을 향해 다리를 건너가고 있는 그림이다. 그 뒤를 짐을 매단 작대기를 어깨에 걸친 동자 하나가 따른다. 최복의 산수화는 유난히 설경이

많이 남아 있다. 이름인 북(北)은 오행(五行)에서 계절로는 겨울이다. 당시의 유명한 시인이며 윤두서의 사위인 석북(石北) 신광수(1713-1775)가 1763년 정월 서울로 올라왔을 때 최복을 만나 「최북설강도가(崔北雪江圖歌)」를 지어주며 겨울산수를 그려 달라고 했던 것을 보면 설경으로 유명했던 것 같다. 신광수의 동생 신광하는 「최북가(崔北歌)」를 지어 최북이 삼장설(三丈雪)의 눈 속에서 얼어 죽었으나 그 이름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으리라고 했다. 겨울산수의 주제는 외로움과 쓸쓸함이다. 호생의 뜻이 자조, 자금, 자부 어느 것이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남다른 그의 기개는 세상에서 받아 들여지지 못해 외롭고 쓸쓸하게 죽었던 것이다.

칠칠

<괴석(怪石)>에는 ‘칠칠(七七)’이라는 최복의 자(字)를 새긴 인장 하나만 찍혀 있다. 최복은 숫자계산의 실무를 담 당 하는 기술 직인 잡과의 주학(籌學)에 많은 합격지를 낸 중인 집안 출신으로

아버지도 계사(計士)였다. 그런데 최복은 가업을 잇지 않았고, 그림으로 유명해 36세 때 통신사를 수행하며 그림 업무로 6개월간 일본을 다녀온 일도 있으나 도화서의 화원도 아니었다. 일본에서 쓴 호로 거기재(居其齋)가 있다. 최복이 어떻게 화가의 길로 들어섰는지 등 그의 생애에 대해서는 알려진 것이 많지 않다. 최복의 시를 보면 서울 출신인 그가 북방 변경에서 수년간 지냈음을 알 수 있고 평양, 동래 등에서도 살았다고 한다. 최복의 원래 이름은 식(植)이고 자는 성기(聖器)였다. 스스로 북(北)으로 개명하고 이 이름을 둘로 쪼개 파자(破字) 해 자를 칠칠이라고 했다. 북은 ‘북녘, 북쪽으로 가다, 도망치다’라는 뜻이어서 북쪽 변방에서 살았다는 사실과 세상과 화합하지 못하는 심정을 함께 나타낸 것 같다. 칠칠은 못난이,



최복 <괴석>
종이에 담채, 28.3×33.6cm, 부산광역시립박물관 소장

바보라는 뜻이지만 다른 뜻도 있다. 당나라 때 도사(道士) 은천상(殷天祥)이 스스로 ‘칠칠’이라고 해 은칠칠로 불렸다는 이야기가 『태평광기』에 나오기 때문이다. 은천상은 봄꽃인 두견화를 가을에 피운 환술(幻術)을 부렸다고 한다. 최북과 교유한 혜환(惠奩) 이용휴는 최북이 그린 금강산 그림에 붙인 「제풍악도(題楓嶽圖)」에서 “은칠칠은 때가 아닌데도 꽃을 피게 했고, 최칠칠은 흙이 없는데도 산을 만들어냈다. 모두 순식간에 이루어진 일이니 기이하다.”라고 한 것이 있다.

호생과 칠칠은 둘 다 중국 문헌과 연관되면서 겹쳐지는 의미가 교묘하게 담겨있다. 최북은 이 이름의 원래 뜻을 이해하고, 그것을 냉소로 비틀어 활용할 만큼 지적 교양이 있는 인물이었다. 그러나 당시는 신분 사이의 차별이 엄연한 사회였고, 군자라는 윤리적 인간형 이외의 타입은 받아 들여지기 어려운 시대였다. 화가의 전문성은 환쟁이의 기능으로 밖에 인정받지 못했고, 양반이 아니었기 때문에 시서화를 다 갖추었음에도 지식인으로 받아들여지지 못했다. 호생관이라는 자호(自號), 북이라는 이름, 칠칠이라고 한 자 등은 자신의 재능을 정당하게 대접해주지 않는 세상에 대한 저항과 그의 자존의식이 중첩된 이름이다.

〈괴석(怪石)〉은 풀이 잔잔하게 나있는 지면 위에 커다란 구멍이 여기 저기 뚫린 돌 한 덩어리가 꽃 잎양 땅에 심어져 있다. 다양한 농담의 갈색으로 돌을 색칠했고 연한 녹색과 청색의 잔 붓질로 땅과 풀을 나타냈다. 준법(鍊法) 대신 색조로 입체감을 나타냈고, 돌의 형태는 유연한 곡선의 필선을 중첩한 윤곽선으로 그려내 수묵화가 아니라 수채화처럼 보인다. ‘괴석’은 문인 문화의 심화와 함께 19세기가 되면 그림의 한 주제로 등장해 유행하는데 최북의 〈괴석〉은 조선말기의 심미의식을 앞서서 보여주는 그림이다. 금대(錦帶) 이가환의 사위인 낙하생(洛河生) 이학규의 「최칠칠행화순구도(崔七七杏花鵝鳩圖)」에 최북이 ‘죽석(竹石)’그림에도 뛰어났다는 구절이 있다.

좌은재

작은 그림인데 인장을 4방이나 찍었다. 오른쪽 위에 주문타원인 〈호생(毫生)〉이 있고, ‘좌은재(坐隱齋)’로 서명한 아래로 〈반월(半月)〉, 〈최씨(崔氏)〉, 〈칠칠(七七)〉이 일렬로 찍혀 있다. 반월은 금릉(金陵) 남공철의 「최칠칠전(崔七七傳)」에 최북이 애꾸눈이어서 ‘상대애채반(嘗帶顰顰半),

곧 ‘안경을 반만 끼고’

그림을 그렸다고했는데

이 사실을 스스로 두

눈 중에 반만 밝은 반월

(半月)이라고 한 것이

아닐까 추측해 본다.

최북이 애꾸눈이 된

사연은 우봉(又峰)

조희룡의 『호산외기』

에 나온다. 어떤 귀인

(貴人)이 그림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그를 권세로 위협하며 기를 꺾으려 하자 최북이 “내 눈이 내 뜻을 지키지 못하게 한다.”라며 분노해 한쪽 눈을 스스로 찔렀다고 한다. 조희룡은 이 일화를 전하며 “북풍 같은 매서움으로 귀인의 하인노릇을 하지 않으면 그만일 것을 스스로 괴롭히기를 그렇게까지 해야만 했는가?”라는 인물평을 걸었다.

최북은 많은 일화를 남긴 화가이다. 금강산 그림도 여러 점 남겼는데, 금강산 구룡연에 갔을 때 매우 기뻐하며 술을 잔뜩 마시고 취해 울다 웃다 하더니 “천하의 명인 최북은 마땅히 천하의 명산에서 죽어야 한다.”며 몸을 날려 뛰어들어 폭포 가에까지 이르렀으나 구해주는 사람이 있어 빠지지는 않았다고 한다. 최북은 금강산에서 각별한 감회를 느꼈던 것 같다. 감수성이 특별했던 만큼 행동 또한 남달랐던 것이다.

〈서설홍청(鼠嘯紅靑)〉은 최북의 호 좌은재를 알려준다. 옛사람들은 고상한 소일거리인 바둑을 손으로 하는 말 없는 대화라고 해서 수담(手談)이라고 했고, 바둑 두는 일을 좌은(坐隱)이라고 했다. 최북은 바둑 고수였다. 「최칠칠전」에 최북이 서평공자(西平公子)와 백금(百金)을 걸고 내기 바둑을 두다 공자가 한 수 물러달라고 하자 바둑돌을 흩어버리고 다시는 그와 대국하지 않았다는 일화도 전한다. 서평공자는 선조의 고손자인 서평군이요 숙종의 신임을 받아 권세가 막강했던 인물이다. 그러나 최북의 ‘성여도봉화염(性如刀鋒火焰)’이라고 한 칼끝 같고, 불꽃같은 뽕뽕한 성품은 왕실 종친이라고 해서 물러서지 않았던 것이다. 최북이 종인의 신분이면서 종친을 비롯해 당대 명사인 성호(星湖) 이익, 이용휴를 비롯해 원교(圓嶠) 이광사, 표암(豹菴) 강세황, 연객(煙客) 허필, 남공철 등과 어울렸던 것은



최북 〈서설홍청〉
종이에 담채, 20×19cm, 간송미술관 소장

그의 그림 실력과 시서(詩書) 교양 뿐 아니라 바둑 실력도 한 몫을 차지했던 것 같다.

올해는 2020년 경자년 쥐해이다. 〈서설홍청〉은 옛 그림에서 쥐가 단독 주연으로 나오는 드문 그림이다. 쥐 한 마리가 붉은 순무를 갉고 있다. 쥐, 다람쥐, 햄스터 등 ‘이를 가는 부류’인 설치류(齧齒類) 동물은 앞니가 계속 자라므로 어떤 물건이든 갉아 이를 닦게 하는 생태적 특징이 있다. 그렇다고 해도 갉아대는 쥐를 굳이 그림으로까지 그린 까닭은 그 소리가 돈 세는 소리와 비슷하다고 해서 부를 가져다준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쥐는 평생 이를 가는데, 평생 돈을 세시라는 뜻을 그림으로그린 것이다. 십이지(十二支) 중에 1등인 쥐는 재물을 상징한다. 부지런히 먹이를 모아놓는 습성과 새끼를 많이 낳는 번식력 때문일 것이다. 붉은 무는 홍복(紅福)인데 큰 복인 홍복(洪福)과 발음이 비슷해 큰 복을 누리시라는 뜻이 된다. 심사정도 붉은 무를 갉고 있는 쥐 그림을 남긴 것을 보면 어떤 본(本)이 있었던 것 같다.

12지는 원래 고대 천문학에서 시간을 표기하기 위해 만든 별자리 단위로 중국, 일본, 인도, 베트남, 네팔 등 여러 나라에 있다. 12마리 동물이 우주 동물원을 구성하며 십이지의 징표로 대입된 것은 불교의 십이신장(十二神將), 도교 방위신앙의 영향이라고 하는데 더 멀리는 인간이 동물을 숭배하던 토템사회의 흔적이라고 한다. 곰을 숭배하는 부족은 곰이 자신들의 조상이라고 믿었고, 다람쥐를 신으로 모시는 부족은 다람쥐를 조상으로 여겼다. 띠는 “그 사람의 심장에 숨어있는 동물”이다.

삼기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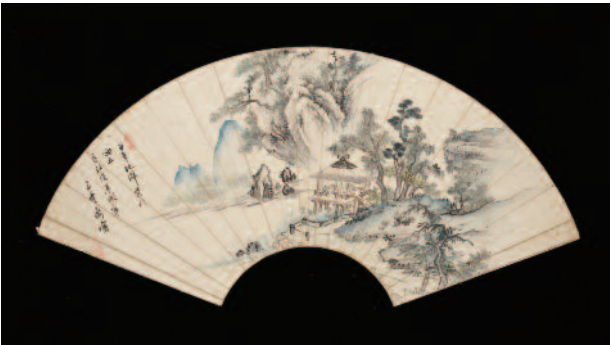
〈강심초각(江深草閣)〉에는 화제의 앞 쪽에 머리도장 〈호생〉이 있고, ‘삼기재사(三奇齋寫)’로 서명한 아래로 〈반월〉, 〈최씨〉 등으로 작은 인장이 찍혀 있다. 삼기재는 최북이 40세 이전부터 사용한 호인데 ‘세 가지 기이한 재주’는 시서화이다. 문장과 글씨, 그림을 다 잘한다고 스스로 자부해 지은 호라고 『석농화원』에 나온다.

당시 최북을 광생(狂生), 곧 미치광이라고 손가락질하는 이도 있었다고 하지만, 이 그림을 보면 ‘최산수’라고 불렸던 최북의 화가로서의 명성이 탄탄한 실력에서 나왔음을 알 수 있다. 여러 일화가 전하는 기인(奇人)의 모습과 달리 문인 취향의 온아한 그림이다. 화보에 나오는 구도이지만 화보를 능숙하게 소화하며 짜임새 있게 강가의 누각과 나무, 언덕과 먼

산을 배치했고, 맑고 화사한 청색으로 세련되게 화면에 생기를 주었다.

속도가 느린 운필의 여유 있고 부드러운 필치로 경물을 꼼꼼하게 그리면서 시정(詩情)을 담았다.

화제는 “백년지벽시문형(百年地僻柴門迥) 오월강심초각한(五月江深草閣寒)”으로 “평생 외진 곳에 살아 시립문도 아득한데, 오월의 강은 깊고 초기집 차갑네.”라는 뜻이다. 당나라 두보의 시 「엄공중하왕가초당검휴주찬득한자(嚴公仲夏枉駕草堂兼携酒餽得寒字)」, 곧 “엄공께서 여름날 술과 음식을 준비하여 몸소 초당을 찾아주셨을 때 ‘한(寒)’자 운을 얻어서” 중의 두 구이다. 이 그림은 이 시의 내용을 그림으로 그린 시의도(詩意圖)이다. 시구의 내용에 따라 강가의 초가지붕 누각을 그렸고, 누각 안에는 두 인물이 마주하고 있다. 이 인물은 두보와 엄무(嚴武)이다. 두보가 곤궁한 처지로 사천성 성도로 왔을 때 옛 친구인 엄무가 그 곳 관리로 있으면서 두보에게 후원자가 되어 주어 두보는 성도 교외 완화계(浣花溪)에 초당을 마련하고 여기에서 4년여의 비교적 평온한 나날을 보내며 240여 수의 시를 지었다. 이 시는 엄무가 서울로 소환되어 작별 인사차 술과 안주를 가지고 두보를 찾아왔을 때 지었다. 이때는 762년 음력 5월의 초여름이었는데 ‘한(寒)’을 운자로 한 것은 의지처를 잃은 두보의 쓸쓸한 심정을 나타내는 듯하다. 동아시아 한자문화권에서 그림은 일찍부터 문학과 밀접했지만 시를 주제로 삼아 시의 내용을 그림으로 그리고 그 시를 화제로 써넣는 시의도는 조선후기에 유행한 새로운 경향이다. 시서화를 겸비한 최초의 증인출신 전업화가 최북은 시의도 유행의 선두에 있었다.



최북 〈강심초각〉
종이에 담채, 22.7×69.1cm,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커뮤니티 아트1. 커뮤니티 아트 매핑(mapping)

이강민
울산미학연구소'봄'대표/울산대겸임교수

2020년 다시 문예지 연재가 시작되었다. “다시 한 번, 울산문화예술회관을 사랑해주시고, 울산문화 발전에 토대가 되어주시는 독자여러분께 새봄을 맞아 인사드립니다.” 지난해 필자는 ‘예술에 대한 편견’이라는 주제로 10회 연재를 했다. 이어서 올해는 예술가들이 미술관을 벗어나 공동체(지역 사회)에 뛰어들어 평범한 사람들을 예술 창작의 주인으로 내세운, 영국의 ‘커뮤니티 아트’(community art)를 10회에 걸쳐 소개하고자 한다. 인간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와 예술의 긴장관계 속에서 펼쳐지는 커뮤니티 아트의 성장과 쇠퇴 그리고 부활에 대한 일련의 역사적 과정은 오늘날 예술 참여에 대한 생생한 교훈을 전해주리라 기대한다.

동시대 예술 경향： 참여와 개입으로서 참여 예술의 정상화

커뮤니티 아트에 대한 논의 전에 우선 참여 예술(participatory arts)에 관해서 살펴보는 것이 순서이겠다. 왜냐하면 참여 예술은 예술에 보통사람들이 참여하는 예술로서, ‘예술이란 위대한 창작가들의 전유물이다’라는 오래된 관념이 사실 신성불가침의 규범이 아니라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예술 형식이기 때문이다.

참여 예술에는 대중의 참여 방식과 작품 창작 과정에 관한 수준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될 수 있다. 펠릭스 곤잘레스 토레스(Felix Gonzalez-Torres)의 작품 ‘무제’(LA에서 로스의 초상화, 1991)는 작가가 미술관 한 쪽 모서리 공간에 사탕(79kg)을 쌓아놓고, 관객들이 그 사탕을 집어감으로써 비로소 작품이 완성된다.(그림1) 그리고 제레미 델러의 참여 예술, ‘오그리브 전투’는 1984년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에 맞선 광부파업을 재연한 퍼포

먼스이다. 작업에 참여한 사람들은 20여개의 전문 재연연극단체와 8천명에 달하는 전직 광부 및 경찰, 그리고 일반시민들이 참여했다.(그림2) 참여 예술이 예술계에서도 보편성을 획득했다는 것은 어셈블(Assemble)의 터너상 수상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터너상은 테이트 브리튼이 주관하는 세계적 권위를 가진 상으로서 매년 ‘가장 영국스러운 작가’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그런데 2015년은 ‘예술, 디자인, 건축 분야를 넘나들며 거주하는 공동체와 협력하는 프로젝트를 만드는 집단’인 어셈블에게 돌아갔다.(그림3) 이처럼 참여 예술은 공연장이나 미술관 등 예술 자체 뿐 아니라 교육이나 보건의료, 군·경·재소자, 그리고 지역사회 등 일상생활 전 영역으로 확대되었다.(그림4)

참여 예술 확산의 원인과 제도적 대응

참여 예술이 강조되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먼저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첫 번째 원인은 오늘날 경제패러다임이 지식기반사회로 전환되었기 때문이다. 지식기반사회에서 국가의 경쟁력은 개인의 수준에서 지식을 새롭게 가공하는 능력, 즉 똑같은 것을 보더라도 새롭게 받아들이는 ‘감수성’과 새롭게 가공하는 ‘상상력’으로 제시된다. 그런데 감수성과 상상력에 대한 훈련은 예술 참여를 통해 가장 잘 수행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새로운 지식의 생산과 소비는 전 국가적 차원에서 이루어질 때 국가 경쟁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새로운 지식은 각자 서로 다른 지식과 경험 즉 문화를 가진 사람들의 융합에 의해 만들어지기 때문에, 시민은 창의성의 보고가 되며, 시민창의성이 곧 국가 경쟁력이 된다는 것



그림1》 무제 (LA의 로스 초상화)
이 작품을 구성하는 약 175파운드의 사탕은 1991년 에이즈로 사망한 이 예술가의 남자친구 로스 레이콕의 175파운드의 몸을 닮았다. 사람들이 사탕 한 조각을 가져갈 때, 그들은 차례로 로스의 몸을 고갈시키는 에이즈 바이러스 역할을 하고, 아무것도 남지 않을 때까지 조금씩 그것을 빼앗아간다. 사탕이 하나도 남지 않으면 다시 채움으로써 소멸과 영원성에 대해 사유하게 된다.
Felix Gonzalez-Torres - Untitled (Portrait of Ross in L.A.), 1991, 다색 셀로판지로 개별 포장된 캔디, 무한공급. 치수는 설치에 따라 다르다; 이상적인 무게는 175파운드. 시카고 예술원에서. <https://publicdelivery.org/felix-gonzalez-torres-untitled-portrait-of-ross-in-la-1991/>



그림3》 2015년 터너상은 ‘예술, 디자인, 건축 분야를 넘나들며 거주하는 공동체와 협력하는 프로젝트를 만드는 집단’인 어셈블(Assemble)에게 수여되었다. 이들은 지역공동체 구성원들의 전문 기술을 프로젝트에 사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설계한다.
Assemble Group Photo 2014 © Assemble
<http://www.tate.org.uk/whats-on/other-venue/exhibition/turner-prize2015/turner-prize-2015-artists-assemble>



그림2》 제레미 델러의 참여 예술, ‘오그리브 전투’는 1984년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에 맞선 광부파업을 재연한 퍼포먼스이다. 작업에 참여한 사람들은 20여개의 전문 재연연극단체와 8천명에 달하는 전직 광부 및 경찰, 그리고 일반시민들이 참여했다. 그리고 델러는 이 작품을 위해 지역공동체와 충분한 시간을 가졌으며, 이 작품의 의도는 노동자들의 명예를 씻어 주는 것이었다.



그림 4》 카트레푸(cARtrefu)는 예술가와 웨일즈의 122개 요양원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연결해주는 예술교육 프로그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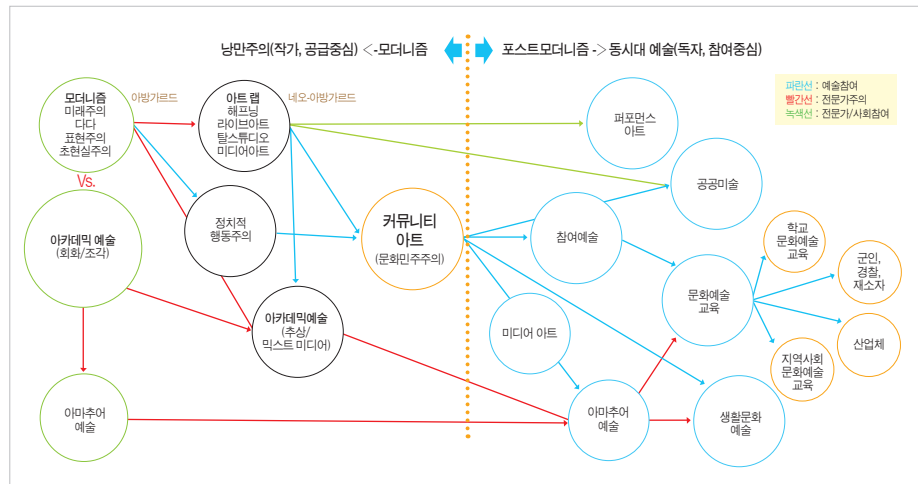


그림5> 커뮤니티 아트 매핑

평범한 사람들이 직접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술을 만드는 커뮤니티 아트는 예술이 위대한 예술가만의 창조물이라는 생각을 허물었다.

이다. 이것이 문화와 예술교육 서비스가 전 국가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이유이다.

다음으로 유엔 및 국제기구의 지속가능한 '개발 패러다임'의 전환이 참여 예술 확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2차 대전이후, 미국의 트루먼 독트린에 의해 탈식민주의와 반공산주의를 위한 국제개발원조가 시작된다. 이때 개발 패러다임은 이른바 '낙수효과'(trickle down)였다. 즉 서구의 경제모델을 따르면 개도국의 경제도 발전할 수 있다는 논리였다. 그런데 지속적인 원조에도 불구하고 1980년대 개발도상국들은 채무위기를 맞았고, 1990년대 들어 공여국들은 원조 피로도가 높아졌고, 경제 불황을 맞았다. 이것은 글로벌 신자유주의, 즉 세계화를 통해 전지구적 생산과 소득이 증가할 것이라는 믿음이 위기를 맞게 되었다는 증표이다. 이에 따라 국제사회는 하향식(top-down)의 근대적 개발이론을 버리고 지역과 커뮤니티 기반의 참여 중심적 상향식(bottom-up) 포스트-개발 패러다임을 채택하게 된다. 이에 따라 국제사회는 이제 문화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시작했다.(그림5) 왜냐하면 문화는 사람들에게 특정한 규범에 따라 생각하고 행동하게 함으로써 자발적 통제, 즉 능동적 활동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국제사회와 국가 그리고 지방정부에서는 참여에 대해, 특히 참여 예술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증폭되고 있다. 세계의 공여국들이 문화적 지원에 더 많은 시간과 자금을 투자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문화예술교육지원법'(2005) '문화기본법'(2013)과 '지역문화진흥법'(2014)은

그러나 아무리 참여 예술이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예술 형식이 되었다 하더라도 참여 예술의 뿌리는 커뮤니티 아트이다. 그것은 커뮤니티 아트와 영국 정치의 관계 속에서 파악할 수 있다. 커뮤니티 아트는 1960년대 후반, 기존 예술 전통에 반기를 든 아방가르드 예술가들과 아카데미 예술가들 그리고 기성 정치와 문화 질서를 거부하던 행동주의자들이 소외된 지역 사회와 공동체의 권리를 위해 공동체와 함께 협력하던 예술 실천으로 탄생한 예술 유형을 말한다.

커뮤니티 아트는 정치와 경제, 그리고 문화로부터 소외된 공동체(지역 사회)의 권리 회복을 위한 운동으로 시작되었다. 따라서 커뮤니티 아트는 작품의 미학적 가치보다는 공동체의 권리와 가치 실현이라는 윤리적 가치에 더 주목하는 예술이다. 그렇기 때문에 커뮤니티 아트는 급진적이고 정치적인 예술 실천이었다. 이러한 목적과 방법을 가진 예술은 당연히 정부로부터 불온시 되었고, 예술계에서는 평범한 사람들이 만들어낸 작품이라는 점에서 예술적 가치를 의심했다. 하지만 당시의 예술 경향은 전통적인 회화나 조각을 거부하고 관객과 함께 하는 퍼포먼스 아트와 기성 제도와 정치를 비판하는 전위적인 예술 등이 폭발적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커뮤니티 아트의 정치적이며 급진적인 성향이나 비물질적인 작품 형식은 오히려 정상적인 미술운동이었다. 그런데 퍼포먼스 아트는 아방가르드의 맥락을 유지하면서 작가 중심, 미학적 실천을 통해 사회에 대한 비판적 참여를 높여간 반면에, 커뮤니티 아트는 공동체의 참여와 자기 결정 권한에

이러한 지역커뮤니티 기반의 상향식 개발을 위해 제정된 법이다. 그리고 상향식 개발의 구체적 실천으로서 문화 예술교육과 생활문화 및 지역문화 활성화가 강조되고 있으며, 지원기구로서 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지역센터, 지역문화진흥원(구, 생활문화진흥원)과 지역문화재단이 광역 및 기초 단계에서 점차 설립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과 기구에는 참여 예술의 정신이 스며들어 있다.

커뮤니티
아트 매핑

그림6> 국제개발협력에서 문화와 개발에 관한 논의

년도	국제회의의 결의문·협약	문화와 발전 주요 내용
1988 1997	유네스코 '세계문화발전 10년' 지정	본격적인 문화와 발전 논의
1995	세계문화발전위원회 '우리의 창조적 다양성' 발간	문화(태도와 삶의 방식)는 모든 종류의 자원들을 관리하는 방식을 좌우하므로 지속가능한 발전의 핵심, 세계화와 개발이 정체성과 공동체 의식의 상실 초래, 전통의 관점에서 개발에 참여 필요.
1998	발전을 위한 문화정책 정부 간 회의(스톡홀름)	성, 계급, 민족 등 개인인 문화적 차이의 인정, 문화 간 대화 촉진위한 환경 조성의 주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 정부의 역할 강조
2001	세계 문화다양성 선언	문화다양성은 개발의 근간 중 하나, 문화적 권리가 인권의 필수요소 구성요소
2010, 2011	유엔, 문화와 발전에 관한 결의안 채택	문화가 개인과 공동체를 위한 정체성, 혁신, 창의성의 근원, 경제 성장과 개발 과정의 개발주권을 제공,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원주민 지식의 중요성.
2013	한자우 문화와 발전 국제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동인으로서 문화를 개발 이젠다에 포함, 공동체 차원의 문화권, 문화권 환경 조성의 주체로서 공동 체 강조

(김숙진, 「국제개발협력에서 문화와 발전 논의의 전개와 한계, 그리고 관계적 장소 개념의 필요성」, 『대한지리학회지』, 제51권 제6호, 2016, 826쪽 요약)

관심을 더 많이 두었다.

그런데 커뮤니티 아트는 아방가르드의 맥락에서 퍼포먼스 아트와는 다르게 그 정치적이고 급진적인 성격으로 인해 비록 제도적인 예술옹어로 자리를 잡지 못했다.⁹⁾ 왜냐하면 커뮤니티 아트가 가난한 사람들을 자신들의 권리를 찾기 위한 집단적인 의식과 행동으로 인도했기 때문에, 기업들의 입장을 대변하던 정부의 입장에서서는 불편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2차 대전 이후 자연스럽게 형성되었던 노동조합과 자본가, 노동당과 보수당의 합의의 관계는 1979년 대처정부의 집권과 함께 붕괴된다. 1980년대 마가렛 대처(Margaret Thatcher) 수상이 강력하게 추진한 신자유주의 정책은 대규모 실업과 공장폐쇄, 그리고 공공부문의 축소를 강제했다. 이것은 노동자와 가난한 사람들의 격렬한 저항에 부딪혔고, 소위 말하는 계급 전쟁을 통해 공동체의 권한 부여를 위한 공동체 예술은 해체된다. 대중의 참여를 기반으로 한 커뮤니티 아트는 1990년대 토니블레어 정부의 집권과 함께 사회통합과 창조산업의 문화적 대응물인 참여 예술로 대체된다. 참여 예술은 1990년대 문화와 경제, 그리고 정치적 민주주의가 통합된 상황에서 사람들을 주체화하는 강력한 수단이 되고 있다. 그리고 오늘날 커뮤니티 아트란 용어가 다시 회자 되는 것은 커뮤니티 아트가 무해한 참여 예술과 동질화됨으로써 참여 예술이라는 용어보다 공동체와 참여를 통한 지역 개발의 더 적합한 용어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커뮤니티 아트를 둘러싼 일련의 과정을 볼 때, 커뮤니티 아트는 그 이전 시기, 즉 모더니즘

시기의 권위적인 작가주의를 거부하고 평범한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자신의 손으로 직접 예술을 창조하는 권리를 본격적으로 주장한 예술운동이며, 오늘날 참여 기반 예술 실천의 토대가 된 예술이라고 볼 수 있다.(그림6)

주인인가 머슴인가?

참여 예술은 위기와 기회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예술실천이다. 이러한 모순적인 상황은 참여 개념의 불명확성에서 기인한다. 특히 위에서 언급한 아방가르드의 참여는 예술가의 사회적 참여 인데 반해, 공동체 예술의 참여는 예술에 대한 평범한 사람들의 참여이다. 참여에 대한 다른 접근은 참여 예술과 비판적 예술의 경계가 그어질 뿐 아니라 오늘날 참여 예술을 둘러싼 격렬한 논쟁의 시발점이 된다. 후에 논이 되겠지만 이 논쟁은 참여 예술이 사회적 통합이라는 윤리적 목적 때문에 현실의 불평등과 갈등을 예술로 덮어 버린다는 것이다. 반면에 참여 예술은 예술에 참여하는 계기를 통해 소외된 인간관계를 회복하고, 나아가 이러한 관계적 힘을 통해 불평등한 현실을 개선하고 새로운 공동체의 가치 질서를 구축할 수 있다고 반박한다. 이러한 논쟁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사실은 예술에 대한 대중의 참여는 이제 되돌릴 수 없는 현실이 되었기에 참여 예술에 대한 보다 비판적 시각을 갖추는 것이다. 이러한 비판적 시각은 커뮤니티 아트가 그 근거를 제공할 수 있다. 왜냐하면 문화와 다양성, 그리고 민주주의가 지속가능한 개발의 동력이 되는 시대에는 인간의 권리에 더 열려있는 공동체 예술이, 작가주의에 더 가까운 참여 예술이나 비판적 예술보다는 보다 더 창조적이고 자주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평범한 사람들을 예술의 주인으로 세우고자 했던 커뮤니티 아트는 196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매 10년간을 주기로 탄생·성장·쇠퇴·대체·복원이라는 변화과정을 겪었다. 본 연재는 이미 생활 속 깊숙이 다가온 평범한 사람들이 참여하는 예술이 진정으로 내 삶을 주인으로 만드는 소중한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커뮤니티 아트와 참여 예술, 커뮤니티 아트와 비판적 예술, 커뮤니티 아트와 공공미술, 커뮤니티 아트와 아마추어 예술 및 생활 문화예술, 문화민주화와 문화민주주의 등의 비교를 통해 커뮤니티 아트의 정의와 가치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보면서 커뮤니티 아트에 대한 매핑을 지속할 것이다.

1) 옥스퍼드 사전에는 커뮤니티 아트(community art)라는 용어가 등재되어 있지 않다.

박지운의 오페라와 인생 11 | 박지운
오페라 지휘자 / 오페라 작곡가

오페라 꽃이 피었습니다.

몇년전 지인의 초대로 서울의 모 유명대학이 준비한 모차르트 오페라 ‘돈 조반니’를 보게 되었다.
그런데 공연전 팸플릿을 보니 성악가, 오케스트라, 합창 등 소위 오페라의 3대 요소가 전원 ‘학생’들로 이루어진 공연
이어서 솔직히 큰 기대를 하진 않았었다.
하지만 이게 어찌된 일인가?
그 기간긴 돈 조반니를 거의 커트도 없이 연주했을 뿐 아니라, 18세기 후반-19세기 초반의 코믹오페라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소위 ‘이탈리아어의 자음을 씹어대는’ 레치타티보를 이 학생들이 얼마나 잘 소화해 내는지 혀를 내두를
지경이었다.
게다가 연기력도 어찌나 뛰어난지 (특히 남자배역들).....
또한, 모차르트 오페라에서 가장 만족도를 높이기 어려운 요소 중 하나인, 오케스트라 현 파트의 고난이도의 소위
‘현질’이 얼마나 정교하고 깔끔한 지 정말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해 주고 싶었다.
그러니까.. 순수 학생들만으로 캐스팅 된 성악파트와 학생들만으로 구성되어진 오케스트라가 어루러진, 소위 ‘학교
오페라’의 결과물이 최소한 모차르트 류의 코믹오페라 장르에서 만큼은 최근 몇년동안 국내에서 본 오페라공연 중
최고 수준을 보여주었다는게 충격적인 역설, 아이러니 였던것이다.
물론 역할을 맡은 학생들 한 명, 한 명의 개인적 기량이야 기성 음악인들의 그것과는 분명 차이가 있겠으나, 모차
르트나, 롯시니 등, 이러한 종류의 오페라에서 요구되는 전문용어 ‘Concertazione’ 내지는 ‘Insieme’의 관점에서
볼 때, 기성단체가 주최한 그 어떤 모차르트 오페라보다 더욱 완성도가 있었다고 해도 결코 과장이 아닐것이다.

하기야 순수한 의미-자체극장과 솔리스트, 전속 오케스트라, 합창단을 보유한-에서 온전한 오페라극장이 존재
하지 않는 현 대한민국에서 학교에 재직하거나 출강하거나, 다른 단체를 맡고 있는 기성연주인들이 (물론 필자도
마찬가지이지만) 수개월 씩 모여서 연습하거나, 짧은 기간이나마 아침부터 밤까지 한 작품에만 매달려 있을 수 없는
현 국내 실정에서는 애초에 기성단체에게 이러한 완성도를 기대하는게 무리일지도 모르겠다.
2011년도 겨울이었던가?

필자가 지휘했던 모 대학의 학교 오페라 ‘라 보엠’에서도 몇 개월씩 ‘목숨’ 걸고 연습하는, 그리고 전혀 때문지 않았
기에 주는데로 받아먹는 학생들의 열정으로 인해 기성단체에 버금가는 높은 경지의 라 보엠 이 창출되는 과정을
필자 스스로도 목격하지 않았던가?

어쨌거나 이러한 학생들과 학교들의 노력뿐 아니라,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단체를 꾸려나가고 있는 전국각지의
여러 사립오페라단들의 노력들이 밑거름이 되면서 오페라시장은 질적, 양적인 면에서 우상향 되어나가고 있다.
또한 20세기 말까지는 사립오페라단들을 제외하고 국립오페라단, 서울시립 오페라단, 대구시립 오페라단 등 3개
단체가 전부이던 국내오페라계에 21세기에 들어서면서 많은 변화가 있었다.
먼저 2003년 대구오페라하우스가 개관되었고, 서울시립오페라단이 서울시 오페라단으로 거듭났으며, 2013년에는
대구오페라하우스가 재단법인화 되면서 숙원이던 ‘행정과 예술파트를 이원화’ 시키는 쾌거를 이루어 낸 것이다.
그뿐인가?
2017년에는 광주광역시에 그동안 오매불망 고대하던 시립오페라단이 드디어 탄생하여 우리 예술인들을 기쁘게 해
주었다. 그리고 그후 지난 2년간 보여준 공연의 완성도로 미루어 볼때 광주시립오페라단의 미래는 매우 밝다고
예견해본다. 또한 송도에도 최근 ‘우여곡절’끝에 공연장이 완공되면서 양질의 오페라공연을 조만간 인천에서도
만날 수 있을 예정이다. 그리고 부산역 앞 북항을 메워서 동양최대의 오페라하우스를 만들겠다는 부산예술인들의
오랜 염원도 수 년내에 빛을 볼 예정으로 공사가 진척 중 인것이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빠트릴 수 없는 사실은 전국에 걸쳐 산재하고 있는 무려 130여개의 오페라단들이 척박한 토양과
열악한 지원속에서도 소신있게 작품들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광역시 급들은 물론이고, 전주, 창원, 경기도 광주, 강릉, 원주, 진주, 김해, 포항, 파주, 제주, 특히 최남단의 서귀포에
이르기까지 열악한 오페라환경을 딛고 수 십년씩 사비를 털어 오페라를 제작해 온 지역 사립오페라단들의 눈물
겨운 사투가 있어 왔기에 이렇게 전국에 오페라 불이 일어나고 있는게 아닌가 한다.
오페라 지휘자, 오페라 작곡가 등, 플레이어로서 전국각지의 공연장을 ‘돌아다니고’ 있는 필자는 우리나라 오페라가
그간 주위의 우려와는 달리 성악기술 뿐 아니라 그 이외의 소프트웨어 부분도 참 많이 발전했음을 자주 목격하게
되고 이 긍정적인 미래에 동참하고 있는 나 자신이 참으로 뿌듯하기도 하다.

지난 4월 울산에서 가진 갈라콘서트로 시작된 필자와 울산 오페라 관객들과의 만남이 지난해 11월, 오페라 카르멘
공연으로 본격화 되었다.

아, 행복하여라. ...
바야흐로 대한민국에 오페라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미학의 눈 - 작품해석과 감상. 1

말레비치와 이콘, 미켈란젤로

남인숙
미학박사 / 미술평론



미켈란젤로 제작한 노예 연작 아틀라스.
아틀라스가 돌에서 막 나오려고 한다.

미켈란젤로는 돌에서 조각의 형상을 캐낸 것으로 유명하다. 이것은 작가가작품의 청사진을 구성하여 재료를 선택해서 현실 속에 그것을 구현한다는 말이 아니다. 조각하려는 바의 이미지, 작품의 본(本)이 대리석 안에 이미 존재하고 있어서 그 본을 세상으로 이끌고 나오는 것이 조각가의 역할이라는

것이다. 미켈란젤로는 돌에서 형상 혹은 본을 해방시킨 기술자일 뿐이며 다만 형상이 들어 있는 재료를 알아보는 능력을 지닌 것이다. 작업실은 이제 참된 상을 우리 삶 속으로 가져오는 성소가 된다. 돌을 다듬어 캐낸 조각상은 가장 알맞고도 참된 상이 구현된 것으로서 완전하고 아름답다. 바로 신성(神性)이 깃든 것이다. 재료는 사라질 수 있는 운명이되 재료에 깃든 신성, 완전함은 영원하다. 이에 대해 우리는 ‘아- 아름답다!’고 감탄한다.

예술가가 완전한 본을 따라 제작한다는 생각은 플라톤에게서

왔다. 플라톤이 말한 이데아는 세상 모든 것의 본으로서 완전하여 어떤 흠결도 없는 아름다움 자체이며 올바르다. 제작자는 세상에 이 완전함을 최대한 구현하려고 노력할 뿐 백퍼센트 구현하기는 불가능하다. 그 당시 ‘이데아’라는 말이 너무 많이 사용되어 미켈란젤로는 ‘관념’이라는 말을 대신 쓴 것이라 추정하는 학자도 있다. 자신을 신의 도구로 이해하면서도 남과 다르고자 하는 미켈란젤로의 개성이 묻어나는 에피소드이다. 이 지점에서 ‘인간의 발견’이라는 르네상스의 가치를 누구보다도 깊게 고민한 이가 미켈란젤로라는 점을 엿볼 수 있다. 미켈란젤로는 고유한 자기 스타일에 대한 고민이 지대했으며, 신을 대리하는 자라거나 한갖 기술자에 불과하다는 의식 속에서도 사실상 형식의 창조에 매우 과감했다. 노예상을 제작한 방식이나 모세상을 제작한 방식에서 과감의 정도를 확인할 수 있다. 미켈란젤로는 전형적인 예술가였던 것이다. 열정적인 시(詩)를 남겼으며, 인문주의자들과 교류가 깊었던 미켈란젤로는 성 베드로 성당에 있는 〈피에타〉 상도 방치되었던 돌 속에서 캐낸 것으로 알려졌다. 작가가 돌(물질적인 재료) 앞에 섰을 때, 돌 속에서 ‘어머니 무릎 위에 누워있는 예수님’이 보여 그에 맞게 돌을 떼어낸 것이 〈피에타〉라는 것이다. 방치된 돌이었지만, 그 돌에는 피에타가 존재할 가능성이 잠재해 있었고, 예술가는 이를 척- 알아보았고 이 비전을 드러내기 위해 돌을 깎은 것이다. 이런 미켈란젤로의 안목은 어디에서 온 것이며, 돌 속의 형상, 그 본은 누가 거기에 둔 것일까? 우리는 미켈란젤로가 전하려 하던 그 신성을 지금도 똑 같이 느낄 수 있는 것일까? 예술작품을 중심에 두고 세계와

인간의 관계를 묻는 질문들이 그야말로 샘솟듯 하니 이 또한 예술작품이 주는 선물이다.

베드로 성당에 놓인 〈피에타〉가 그 앞에 선 군중을 단번에 사로잡는 것을 보면 그때와 같이 우리 가까이에도 신성은 있는 듯하다. 재료를 알아보는 눈, 그 안목은 신의 눈길을 대리하는 것으로서 작가는 신의 대리인이면서 동시에 선택받은 자가 된다. 알아보는 눈과 다듬는 기술은 가능성을 현실성으로 전환시키는 예술가로서의 핵심 덕목이다. 이들은 지고한 가치를 전달하는 자들로서 이제 인간을 연구하는 인문학자로서 철학자나 음악가, 기하학자 등과 같은 부류에 속하게 된다. 미술이 인문학에 포함된 것이다.

미술은 이렇게 최상의 가치를 매개하는 것으로서 자신에게 속하지 않은 신적 관념을 구체화하여 ‘아름다운 사물’로 만들어 낸다. 미술작품은 신적 관념을 현실에서 만나게 해주는 ‘매개자 기능’을 수행하며, 성속(聖俗)의 간극을 이어 세속을 성스럽게,



성스러움의 잔향을 널리 전파한다. 미켈란젤로가 빚은 작품은 자연의 옷을 벗었다고 해야 하나, 인위의 옷을 입었다고 해야 하나, 벗으면서 입은 이 예술작품은 자연과 인위, 신성과 물질을 매개하며 이데아를 상기시키는 ‘감성적인 매개물’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미켈란젤로는 솜씨가 너무 뛰어나서 그의 작품을 보면 정말 감각적인 것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다. 감각적 확실성, 손으로 만지고 싶은 욕망과 그 현실감 때문에 우리는 고양의 길로 나아가지 못하고 세속의 한복판에 머물게 되기도 한다. 말하자면 성화(聖化)가 성화(性化)되는 것인데, 이는 〈피에타〉에 드러난 인체의 미와 감각의 실감, 해부학적인 확실성 등에 주목하는 것과 같다. 신성함으로 향하는 고양의 길에 방해가 되는 것으로서, 종교적인 도상의 세속화는 인간적인 아름다움과 신적인 아름다움 사이에서 끊임없는 흔들려 왔다. 세속화가 어느 정도인지 이콘화(Icon)와 비교해보면 그 정도가 뚜렷해진다.

이콘화는 종교화이다. 기원후 52년경에 그린 모자이크 이콘화를 보면 등장인물이 어떻게 묘사되었는지 한눈에 알 수 있다.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은 미켈란젤로의 노예나 피에타의 성모상에서 보는 것과 같은 현실감이 없다. ‘오병이어’의 기적 등 그림을 통해 사건을 알리려는 목적이 강하므로 성화로서의 이콘화에서는 등장하는 인물의 사실적 묘사가 필요하지 않다. 인물의 개성 보다는 맥락속에서 인물의 역할이 무엇인지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사실적인 묘사를 통해 감각적인 현실감이 살아난다면 성서는 뒷전이고 오로지 감각의 향연에 사로잡힐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위험은 작품에서 배제된다. 그러므로 이콘화에서는 사실적인 묘사를 얼마나 잘하는가 하는 기술의 측면이 예술가의 덕목으로 평가되지 않는다. 오히려 이콘화 제작을 위해서는 이물질이나 오염된 것, 더럽혀진 것이 개입되지 않도록 하는 수행의 태도가 매우 중요하다. 종교화를 그리는 만큼 이콘 화가들은 무한한 정화의식과 수행을 실천하며, 종교인의 자세로,



작가 미상, 오병이어 AD 520

종교인이 되어 성스러움을 담아낸다. 수행을 거듭하며 정화된 몸과 마음으로 신성을 담아내는 이콘화는 감각적인 절제를 통해 세속적인 것을 가능한 한 억제하거나 제거하는 방향으로 조형물을 구성한다. 그 대신 순수하고 값비싼 재료, 예를 들어 금을 사용함으로써 최고의 가치로써 성스러움을 경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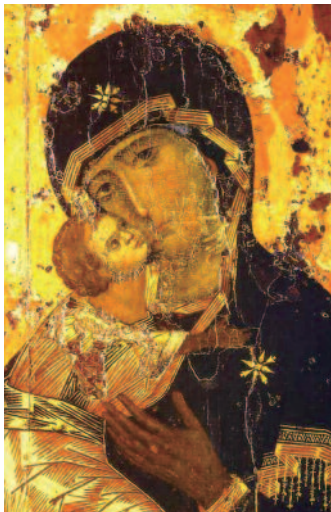
현실과는 거리를 두고, 감각적인 것은 절제하는 방식으로 제작함으로써 이콘화를 마주하는 사람은 단번에 성스러움의 길로 인도되며 그의 정신은 고양된다. 이콘화의 경우그림을 통해의식이 신성함을 향해 고양되어가는



왼쪽 작자미상, 성모자상, 7세기 / 오른쪽 블라디미르 성모 이콘화 부분, 12세기

것은 이 비현실적인 도상의 처리 때문이다. 여기에서 미켈란젤로의 성모상과 이콘의 성모상을 비교해보라. 미켈란젤로가 구현한 성모상이 얼마나 인간적으로 변모되었는지, 즉 세속화되었는지 한 눈에 들어온다.

그런데 이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작품에 감각을 지우고 오로지 근원을 향한 지시만 남겨두고자 한 작품도 있다. 위에서 언급한 신성의 원천으로서 그 근원은 그려지는 것이 아니라 지시될 뿐이라는 생각인데, 이를 다루는 작가가 말레비치이다. 말레비치의 〈검은 사각형〉은 균질한 검정색으로 되어, 세속의 의미를 완전히 비워버렸다. 그럼에도 검정공간은 매우 밀도가 높는데 검정단색의 균질성이 밀도가 높다는 환각을 준다. 〈검정 사각형〉을 만들 줄 아는 말레비치에게 예술작품은 어떤 것일까? 이콘이나 미켈란젤로가 고민한 예술작품의 본성, 신성함으로 고양시키거나 감각적인 매력의 극치를 맛보게 하는 방식을 두고 볼 때 말레비치의 작품은 전적으로 이들과는 다른 양식에 속하는 것이다.



말레비치의 작품을 보면 이상하게도 이콘화 못지않은 고양감을 느낀다. 사각형을 모티프로 한 말레비치의 작품들은 크기에 상관없이 무엇인가 종교적인 성스러움이 베어나는 것이다.이는 아마도 극단적인 축약과 최상의 간결미 때문이 아닐까 한다. 미켈란젤로의 피에타가 생생한 묘사로 인해 살아 숨쉬는 작품이라고 한다면 말레비치의 검은 사각형은 완전한 반대지점에 놓인 것



왼쪽 말레비치 검은 사각형, 가운데 류블로프의 삼위일체 이콘화, 오른쪽 미켈란젤로의 피에타

으로, 감각적인 것이라곤 찾을 수 없다. 말레비치의 작품에는 감각이 전적으로 무화(無化)되어 있는 것이다. 검정사각형은 텅 빈 화면임에도 그 균질성 때문에 초월의 감을 읽게 된다. 사물이 사라지고 감각이 사라진 텅 빈 검정색 앞에서 색 너머에 존재할 것같은 혹은 검정색 속에 포함되어 있을 것만 같은 다른 눈길, 신의 눈길이 느껴지는 것이다. 누군가 나를 바라보는.

말레비치의 〈검은 사각형〉은 우리의 현실을 하나의 그림자로 보고 그 그림자를 만들어내는 원상(原象)이 있을 것이라는 이론적 토대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이 세계를 그림자로 만드는 더 진정한 세계를 표현하는 것이 말레비치에게는 사각형이다. 지구라는 그림자의 세계 혹은 원상이 아닌 재현의 세계 내부로 사각형이 침입해서 실제 세계의 진상, 본질을 알려주는 것이다. 미켈란젤로가 돌을 뜯어내면서 관념을 구현하는 것처럼 물질을 제거해 가는 뿔셈의 길, 다시 말해서 극단적 추상(抽象)의 길을 만들어으로써 말레비치는 아무 것도 없는 검은 사각형을 통해 신성을 구현한 것이다. 암스테르담의 현대미술관에서 대규모 말레비치의

전시가 기획되었는데, 색의 균질성이 주는 초월감은 〈검정 사각형〉에서만 느껴지는 것이 아니다. 사각형들의 콤포지션에서도 감상은 비슷하다.

말레비치와 미켈란젤로는 서로 반대방향을 향하고 있지만 길 위에 비친 신의 눈길만은 같은 것이 아닐까 한다. 신의 눈길을 담아내는 방식으로서 세속과 탈속의 흐름에 미켈란젤로, 이콘화, 말레비치를 놓을 수 있다. 이콘, 미켈란젤로, 말레비치 모두 세속 너머의 완전한 초월적인 가치로 고양되는 도정에서 매개로서의 작품들이 서로 다른 방식으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시대와 이념의 차이가 분명하면서도, 구상과 비구상이라는 정 반대의 형식을 통해 피에타와 검은 사각형은 모두 세계의 목소리와 신의 눈길을 담아내며 세속과 초월을 매개하고 있다.



빅토르 위고의 소설을 창작 뮤지컬로 환생시키다 '웃는 남자'

원종원

순천향대 공연영상학과 교수 / 뮤지컬 평론가 jwon@sch.ac.kr

뮤지컬은 원작을 활용하는 무대를 만드는 경우가 많다. 문화 산업에서 말하는 OSMU, 원 소스 멀티 유즈의 적용이 용이한 장르적 특성이 있다는 의미다. 사실 원 소스 멀티 유즈는 캐릭터 산업에서 주로 쓰이던 말이다. 하나의 인기 캐릭터가 만들어지면 다양한 멀티 유즈를 통해 부가가치를 생산할 수 있다는 뜻이다. '아기공룡 둘리'나 '괴구왕 통키'가 대표적인 사례들이다. 만화책은 물론 게임이나 애니메이션, 학용품 같은 기념품까지 다양한 적용이 가능하다고 해서 붙여진 말이다.

하지만 현대 문화산업에서 OSMU는 그 파급력이 훨씬 커지고 있다. 문화산업에 전방위적으로 적용되며 외연을 확장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해리 포터'가 그렇다. 조앤 롤링이 쓴 이

소설은 1초에 17권이 팔려나가는 진기록을 수립한 인기 서적이지만, 문화산업에서의 파급력은 가히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컴퓨터 게임이나 동명 타이틀의 시리즈 영화가 이뤄낸 흥행은 물론, 테마파크도 만들어지고 기념품 솟도 엄청난 인기를 누린다. 영국 옥스퍼드의 고색창연한 대학 건물이 줄지어 서있는 크라이스트 처치 대학은 해리 포터의 촬영지라는 부제와 함께 연일 장사진을 이루며 관광객을 맞이한다. 무대용 연극도 만들어 졌다. 런던의 유서깊은 팔레스 극장에서 막을 올린 이 흥행작을 찾아가면 어둠의 감옥이라 불리는 아즈카반의 간수인 기괴한 존재 디멘터들이 객석 머리 위를 날아다니는 무시무시한 풍경을 만날 수 있다. 숨소리라도 크게 내뱉으면 마치 소설이나 혹은



MUSICAL 웃는남자 THE MAN WHO LAUGHS



영화에서 그랬던 것처럼 객석 머리위로 내려오는 그들을 직접 대면하게 될 수 있다.

뮤지컬은 특히 OSMU에 꽤나 적합한 장르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 라이브로 전개되는 이야기의 재현이 익숙하면서도 다시 새로운 체험을 가능케 만들기 때문이다. 현장예술이라는 측면과 노래로 구성되어지는 극 전개의 특성이 유명 원작을 다시 가까이 소비하게 만드는 흥미로운 문화산업적 속성을 잉태해낸다. 왕년의 인기 대중음악, 화려한 영화, 소설이나 시집 같은 출판물 등이 원 소스로 활용된다. 아바의 음악들로 만든 '맘마 미아!', 무조건 망하는 영화를 만들어 투자금을 사기친다는 기상천외한 발상이 담긴 '프로듀서스', 가스통 틀루의 소설이나 T.S. 엘리엇의 시집을 가져다 만든 '오페라의 유령'과 '캣츠' 등은 OSMU를 통해 글로벌한 부가가치를 낳은 뮤지컬 산업의 실증적인 사례들이다.

창작 뮤지컬로 꾸며져 앙코르 무대를 꾸미고 있는 뮤지컬 '웃는 남자'도 바로 이런 환경이 낳은 흥행작이다. 원작은 바로 빅토르 위고가 1869년 발표한 소설이다. 영화광이라면 2012년 장 피에르 아메리스 감독이 만들고 제라르 드 빠르디유가 출연했던 프랑스 영화 '웃는 남자(L'homme qui rit)'를 떠올릴 수도 있다. '영화 베트맨에 나오는 조커의 탄생'이라는 조금은 엉뚱한 홍보문구로

이목을 집중시키기도 했는데, 일부러 얼굴을 칼로 찢어 항상 웃는 모습을 만들었다는 극중 캐릭터 탄생의 간접적 모티브를 알 수 있다는 의미다. 사실 소설의 배경이 되던 시절 유럽에서는 귀족들이 노예나 어린 아이의 얼굴을 망측하게 만들어 유희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기록이 있는데, 항상 웃는 얼굴이지만 그 웃음에 담긴 비틀린 사회에 대한 조롱과 심지어 그런 시절을 살아남아야 했던 민초들의 페이스스는 그 자체로 묘한 감상을 자아내는 매력을 담아내기 마련이다. 물론 빅토르 위고가 가장 사랑했다는 소설이라는 별칭이 생겨난 이유도 그래서 나름 이해할 만하다.

뮤지컬로 환생한 '웃는 남자'는 한국 뮤지컬계의 현재와 미래를 담고 있다. 뮤지컬 '헛웃', '모차르트', '엘리자벳' 등을 제작한 EMK 뮤지컬 컴퍼니가 5년여 세월동안 공을 들여 마침내 선을 보인 창작 뮤지컬이기 때문이다. 주로 체코나 오스트리아 등지 그리고 일본에서 흥행을 기록한 유럽 배경의 역사 뮤지컬을 수입해 번안 무대를 꾸미던 제작사가 새로운 한국 뮤지컬에 도전을 시작했다는 것은 그 자체로 매우 이례적이고 또한 고무적이라 인정할 만하다. 단순히 창작 뮤지컬이 수입 뮤지컬에 비해 더 유리한 수익구조를 지니고 있다는 장점 때문만이 아니라 창의적인 노력을 집중해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콘텐츠를 제작

해냄으로써 한국이 단지 소비 시장으로서의 정체성 뿐 아니라 글로벌 문화산업 환경 아래서 창작 기지로서의 성장 가능성을 보였다는 박수 받을 만한 '사건'이기 때문이다.

뮤지컬 '웃는 남자'는 일본어로 번안돼 해외에서 막을 올리는 진 기록도 갖고 있다. 지난 2019년 여름 도쿄 닛세이극장에서 29회 일정으로 시작된 투어는 나고야 미소노좌, 토야마 나िका와 문화홀, 오사카 우메다예술극장과 후쿠오카 기타큐슈 소레이유흔 등 모두 5개 지역을 순회하며 막을 올리며 인기를 끌었다. 대한민국에서 글로벌 제작진에 의해 만들어진 뮤지컬 작품이 초연 두 해만에 일본을 순회한다는 기록 자체가 세계 시장에서의 한국의 위상을 알려주는 것 같아 뿌듯한 사건이었다.

우리말 초연 무대에서는 양준모와 정성화가 맡았던 인정 많은 우르수스로는 오스트리아산 뮤지컬 '엘리자벳'에서 토드(일본 버전의 토드는 김준수가 열연했던 우리 무대와 달리 관록의 배우가 나와 비교적 진중하고 무게감 있는 연기를 선보였다)를, 또 토호의 빅 히트작이었던 일본어 버전의 '레 미제라블'에서 장발장 역으로 등장했으며 여러 텔레비전 드라마를 통해 사랑 받고 있는 일본의 국민배우 아마구치 유이치로가 등장해 특유의 온화함과 부드러운 연기로 극의 중심을 잡아주는 멋진 연기를 선보였다. 과거 뮤지컬 산업의 한류가 단지 '우리 것'을 '남'에게 파는 것에 집중했다면, '웃는 남자'의 사례는 이제 '공연한류의 2.0시대'라는 또 다른 시작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조심스레 예측된다.

뮤지컬 '웃는 남자'의 미덕은 화려한 볼거리다. 가장 뛰어난 것은 단연 무대다. 해외 대작의 번안이 아닌 오리지널 대한민국 뮤지컬이 이렇게까지 비주얼적인 완성도를 갖추었다는 점은 괜시리 자랑스럽게도 느껴진다. 상들리에가 떨어지고, 헬레콥터가 무대에 내려오는 글로벌 흥행 뮤지컬의 마법 같은 무대 효과들을 이젠 한국산 뮤지컬에서도 만날 수 있기 때문이다. '웃는 남자'에서 쉬지 않고 이어지는 무대 전환은 그야말로 장관을 이룬다. 마치 영화의 영상을 보는 듯한 수려함과 세련된 장면전환이 절로 탄성을 자아낸다. 무대 디자이너인 오필영이 심혈을 기울여 완성한 작품이다. 이미 전작인 또 다른 창작 뮤지컬 '마타 하리'를 통해 비행기가 하늘을 날고 영상의 디졸브같은 자연스런 장면 전환의 다양한 무대적 상상력을 실현해냈던 그는 이 작품 '웃는 남자'에서 한층 세련된 무대적 상상력을 구체화해냈다. 특히,





주인공인 그윈플랜의 아픔을 상징하는 붉은 옷은 단지 배우의 얼굴 뿐 아니라 무대 막들과 장치들에 담겨 시종일관 관객들의 시선을 압도한다. ‘부자들의 낙원은 가난한 자들의 지옥을 세워 진다’라는 의미심장한 문구가 노래로, 이미지로, 혹은 무대 세트로 등장할 때마다 화려함 속에 감춰진 시대의 비극이라는 극적인 아이러니가 가슴 저리게 한다. 물론 오늘날에도 그리 낯설지 않다는 점은 이 뮤지컬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주는 또 다른 교훈이자 매력이며 올림이 큰 선언이다.

배우들의 면면도 ‘웃는 남자’가 지닌 미덕이다. 한국 대중문화의 성장 가능성을 무대를 통해 만날 수 있다. 초연에서는 세 명의 배우 - 박효신, 수호, 박강현이 그윽플렌으로 등장했었고, 올해 막을 올린 앙코르 버전에서는 초연 멤버인 수호, 박강현 외에 SG 워너비의 이석훈과 수퍼주니어의 규현이 가세해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어느 배우의 무대가 더 낫다거나 모자르다 말하기 힘들 정도로 각각이 지닌 매력을 잘 담아내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킨다. 여기에 민영기와 양준모가 선보이는 우르수스, 강혜인과 이수빈이 만들어내는 순수한 여인 데아, 신영숙, 김소향, 최성원, 강태을, 이상준, 김경선 등 관록과 뮤지컬 배우들의 조화는 꽤나 만족스런 무대 체험을 선사한다.

뮤지컬을 만든 크리에이티브들도 화려하다. 기본적인 골격은 글로벌한 흥행 제작진이 참여했다. ‘지킬 앤 하이드’, ‘몬테 크리스토’, ‘스칼렛 펄퍼널’의 작곡가 프랭크 와일드혼과 ‘모차르트’, ‘레베카’의 작사가 잭 머피 그리고 수많은 번안 뮤지컬로 국내에서 명성을 쌓고 있는 연출가 로버트 요한슨이 팀을 이뤘다. 한국에서 오랜 세월 다양한 작품으로 협업을 경험한 콤비답게 원숙하고

세련된 완성도를 선보인다. 국내 크리에이티브들과의 조화도 꽤나 만족스럽다. 김문정 음악감독, 구윤영 조명 디자이너, 김지현 음향 디자이너 그리고 전술한 오피셜 무대 디자이너 등 한국 뮤지컬 장인들의 세세한 손길이 꽤나 감동스러운 무대를 이뤄낸다.

빅토르 위고의 소설들은 뮤지컬의 소재로 인기를 누리는 경우가 많다. ‘레 미제라블’이 그랬고, ‘노트르담 드 파리’도 마찬가지다. 국내에서는 이런 작품들을 ‘노블컬’이라 부른다. 물론 소설을 의미하는 ‘노블’과 ‘뮤지컬’의 합성어다. 아무래도 책에서 만났던 활자가 무대로 구체화되며 형상화되는 모습이 대중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묘미가 된다. 하지만 소설과 뮤지컬의 결합은 사실 따로 이름을 명명하지 않아도 너무나 흔한 뮤지컬계의 흥행 공식이다. 찰스 디킨스의 소설을 가져다 만든 ‘올리버!’나 ‘두 도시 이야기’, ‘크리스마스 캐롤’이 그런 경우이고, ‘지킬 앤 하이드’, ‘저미여인의 키스’, ‘마틸다’, 체코 뮤지컬 ‘햄릿’, 프랑스 뮤지컬 ‘로미오와 줄리엣’ 역시 모두 같은 성격의 작품들이다.

무대를 보고 원작 소설을 다시 찾아 읽는 것도 한국에서는 꽤 흔한 경우가 됐다. 한참 세월이 지난 후 다시 각광을 받는다는 ‘역주행의 신화’가 K pop에서만 목격되는 현상만이 아니라는 점이 흥미롭다. 빅토르 위고의 또 다른 소설로 만든 뮤지컬 ‘웃는 남자’는 한국에서 그 신화를 시작했다. 무엇보다 빠르게 성장해온 한국 뮤지컬의 글로벌 뮤지컬 시장을 향한 흥미로운 도전이라 반갑다. 앞으로 얼마나 큰 파괴력을 선보이게 될까. 꽤나 흥미진진한 2020년의 시작이다.



공연가이드

3. 27(금) 19:30

28(土) 14:00
19:00

29(일) 14:00

[기획] 뮤지컬 <레베카>

대공연장 / 울산문화예술회관

V석:150,000원 / R석:130,000원

S석: 90,000원 / A석: 70,000원

※ 공연일정 및 입장료는 주최측의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전시|가이드

2.21(금)~12.9(수)

올해의 작가 기증 작품전

장소 상설전시장 갤러리 씬

주최 울산문화예술회관

참여작가 기증작품 총 44점

(미술 37, 사진 5, 서예 2)

3.25(수)~3.30(월)

제8회 반구대 암각화 서예대전

장소 제1·2·3·4전시장

주최 우리글 써주기 운동본부

전국 공모 서예대전의 입상 작품 300여점 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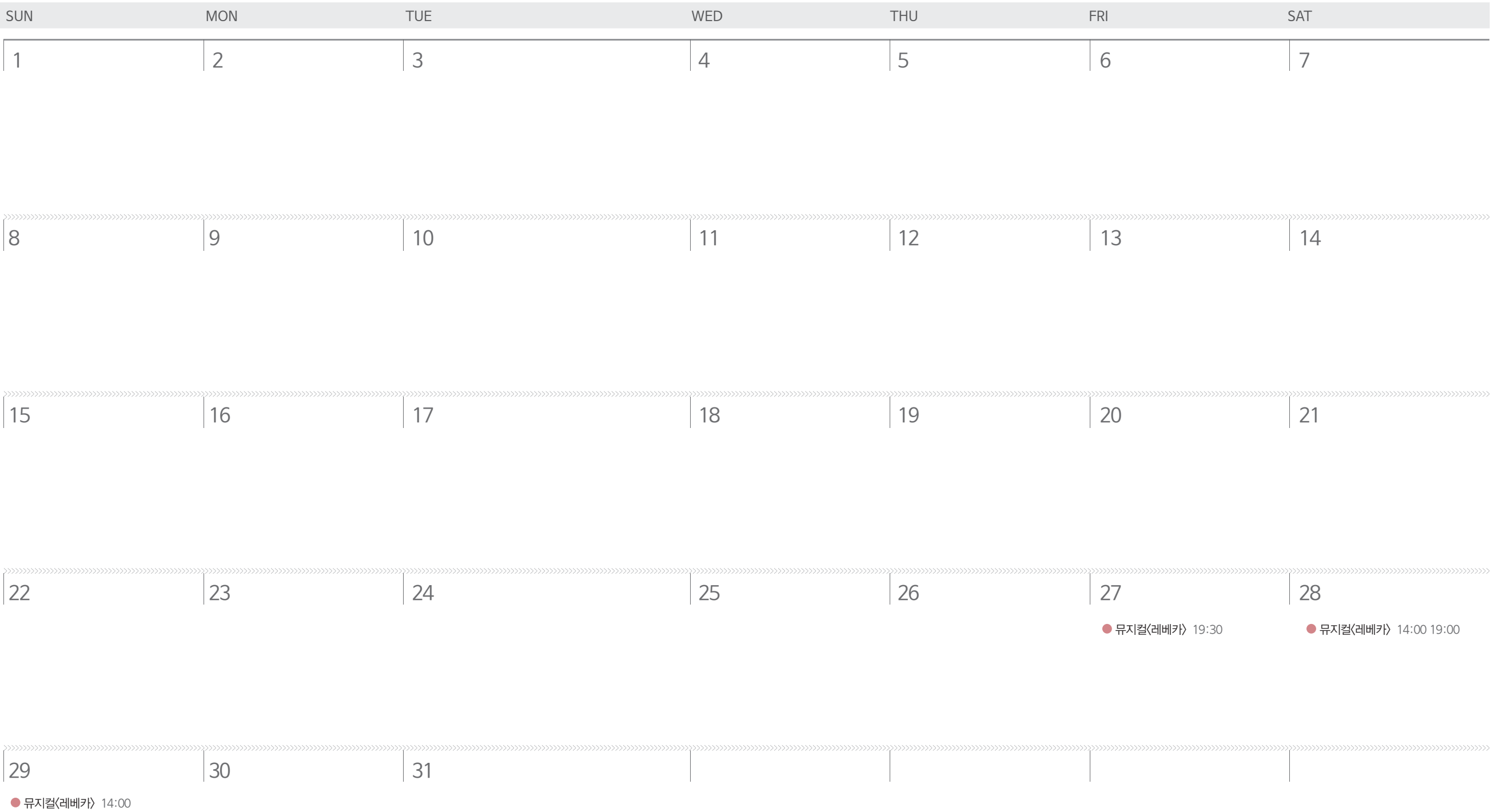
※ 전시일정 및 입장료는 주최측의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공연일정

3
2020

2 0 2 0

※ 공연일정은 주최측의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전시일정

3

2 0 2 0

- 제1전시장
- 제2전시장
- 제3전시장
- 제4전시장
- 갤러리 씬
- 야외전시장

※ 전시일정은 주최측의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 ● 올해의 작가 기증 작품전	2 ● 올해의 작가 기증 작품전	3 ● 올해의 작가 기증 작품전	4 ● 올해의 작가 기증 작품전	5 ● 올해의 작가 기증 작품전	6 ● 올해의 작가 기증 작품전	7 ● 올해의 작가 기증 작품전
8 ● 올해의 작가 기증 작품전	9 ● 올해의 작가 기증 작품전	10 ● 올해의 작가 기증 작품전	11 ● 올해의 작가 기증 작품전	12 ● 올해의 작가 기증 작품전	13 ● 올해의 작가 기증 작품전	14 ● 올해의 작가 기증 작품전
15 ● 올해의 작가 기증 작품전	16 ● 올해의 작가 기증 작품전	17 ● 올해의 작가 기증 작품전	18 ● 올해의 작가 기증 작품전	19 ● 올해의 작가 기증 작품전	20 ● 올해의 작가 기증 작품전	21 ● 올해의 작가 기증 작품전
22 ● 올해의 작가 기증 작품전	23 ● 올해의 작가 기증 작품전	24 ● 올해의 작가 기증 작품전	25 ● 올해의 작가 기증 작품전 ● 제8회 반구대 암각화 서예대전	26 ● 올해의 작가 기증 작품전 ● 제8회 반구대 암각화 서예대전	27 ● 올해의 작가 기증 작품전 ● 제8회 반구대 암각화 서예대전	28 ● 올해의 작가 기증 작품전 ● 제8회 반구대 암각화 서예대전
29 ● 올해의 작가 기증 작품전 ● 제8회 반구대 암각화 서예대전	30 ● 올해의 작가 기증 작품전 ● 제8회 반구대 암각화 서예대전	31 ● 올해의 작가 기증 작품전				

롯데호텔 울산 / 롯데시티호텔 울산 남구 삼산로 282 / 052) 960-4300 이용금액 15~50%할인 (객실 및 식당 단체 이용 시 사전 문의 바람) 유료회원	신라 스테이 남구 삼산로 200 / 052) 901-9000 이용금액 60~70%할인 (객실 및 식당 단체 이용 시 사전 문의 바람) 유료회원	스타즈호텔 울산 남구 남중로 65 / 052) 922-4000 객실 50~70%할인, 식당베이커리 10%할인 (객실 및 식당 단체 이용 시 사전 문의 바람) 유료회원
밀레(달동점) 남구 삼산로 126 / 052) 260-0022 정상가의 10%할인(음품 제외) 유료회원	라비타(LAVITA) 남구 월평로 197 / 052) 245-1111 정상가의 10~20%할인 유료회원	(주) MH컨벤션 (구) 목화웨딩홀 남구 삼산로 226 / 052) 260-5555 웨딩패키지 20% 할인, 사진촬영 50% 할인 뷔페 인당 2,000원 할인(뷔페 뷔페 인당 1,000원 할인) 유료회원
소풍가 신정동 극동스타클래스 1층 상가 052) 275-3579 이용금액 5%할인 유료회원	디엘리 커피 남구 신정로33번길 30 / 010-8348-4800 음료 5%할인 (에스프레소, 아메리카노 제외) 유료회원	울산진산면세점 중구 번영로 363 / 052) 281-5555 면세 판매가에서 18%할인 유료회원
카페베네(울산남구청점) 남구청 맞은 편 / 052) 267-1736 전매뉴 10%할인 유료회원 이용 당일 공연티켓 소지자		

유료회원 가입 안내

가입방법

회원기간 1년, 3년, 5년, 10년

회원종류 일반회원, 청소년회원, 가족회원, 단체회원

가입방법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유료회원 전환(단체회원의 경우 전화 문의)

가입문의 울산문화예술회관 052) 275-9623~8, <http://ucac.ulsan.go.kr>

구 분	가입기준	연 회 비				혜택인원
		1년	3년	5년	10년	
일반회원	만 19세 이상	20,000원	50,000원	80,000원	150,000원	2명
청소년회원	만 7세 이상~만 18세 이하	10,000원	25,000원	40,000원	75,000원	1명
가족회원	한가족	40,000원	100,000원	160,000원	300,000원	4명
단체회원	기업체 또는 단체(10명 이상)	10,000원(1인)	25,000원(1인)	40,000원(1인)	75,000원(1인)	가입인원

유료회원혜택

월 1회 발행되는 문예정보지(ARTS FRIEND) 우송
각종 공연정보 및 이메일 문자 안내
각종 공연·전시 할인 제공

- 연간 50여회의 울산시립예술단(교향악단, 합창단, 무용단) 공연 30% 할인
- 기획공연 30% 이내 할인 • 뒤란 등 상설기획공연 30% 할인
- 회관 주최 유료전시 30% 할인

마일리지 포인트 적립
(적립률 공연별로 상이, 유효기간 5년)
※대관공연 적립제외

- 회관 주최 공연 및 시립예술단 공연 입장료의 5%, 회원가입비의 10%
- 적립된 마일리지 포인트는 회관주최 유료공연 입장권 구매시 사용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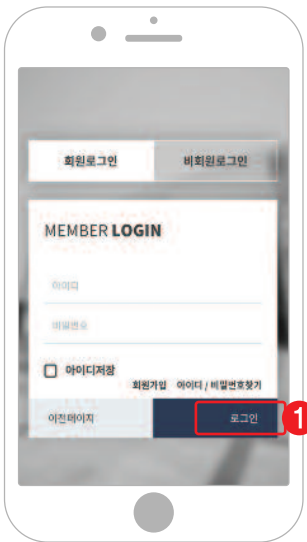
협약점 이용 시 특별혜택 제공

협약점 이용방법

스마트폰 사용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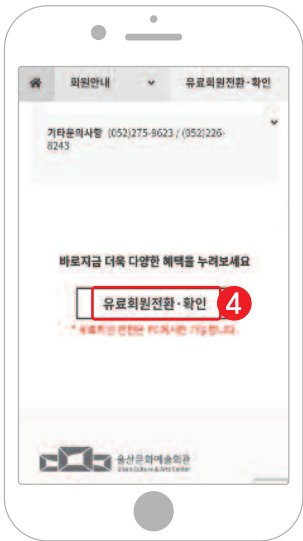
모바일 홈페이지 접속



아이디와 패스워드 입력 후 로그인



[회원안내]
유료회원전환·확인 메뉴 들어가기



하단 유료회원전환·확인 클릭



유료회원 여부 확인

간단히 알아보기

1. 모바일 홈페이지 접속
2. 아이디와 패스워드 입력 후 로그인
3. 회원안내
유료회원전환·확인 메뉴 들어가기
4. 하단 유료회원전환·확인 클릭
5. 유료회원 여부 확인

유의사항 * 유료회원께서는 하단의 이용방법을 숙지 후 협약점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아이디, 패스워드를 모를 경우 회관 052)226-8242 으로 문의바랍니다.

* 이용가능 회원종류 : 일반, 가족, 청소년, 단체회원
* 캡처화면은 사용이 불가합니다.

스마트폰 미 사용자

회관 방문 후 인식증 발급 및 인식증 사용(발급비용 없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문예회관」예방용품 비치 등 적극 대응

- 울산문화예술회관은 공연장·전시장을 찾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손세정제, 체온계 비치, 시설물 방역,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 임시 격리 공간 마련 등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 문예회관 회원 및 시민 여러분께서는 공연장을 찾으실 때 마스크 착용 등 감염예방을 위한 개인위생 수칙을 잘 지켜 원활하게 공연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 기억해야 할 행동수칙

국민 예방수칙



흐르는 물에 비누로
꼼꼼하게 손씻기



기침이나 재채기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씻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 만지지 않기



발열, 호흡기 증상자와의
접촉 피하기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 착용하기



사람 많은 곳
방문 자제하기

특히 임신부, 65세 이상, 만성질환자 외출 시 꼭 준수

유증상자* 예방수칙

* 발열, 호흡기 증상(기침, 목아픔 등) 이 나타난 사람



등교나 출근을 하지 않고
외출 자제하기



3~4일 경과를 관찰하며
집에서 충분히 휴식 취하기



38°C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질 경우
콜센터(☎1339, ☎지역번호+120),
관할보건소 문의 및
선별진료소 우선 방문 후 진료받기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 착용 및 자가 이용하기



진료 의료진에게 해외여행력 및
호흡기 증상자와의 접촉여부 알리기



국내 코로나19 유행지역에서는
외출, 타지역 방문을 자제하고
격리자는 의료인, 방역당국의 지시 철저히 따르기

- 출처 및 제공 : 질병관리본부 KCDC

심각단계에서 준수해야 할 코로나19 행동수칙

일반국민

01.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꼼꼼하게 씻으세요.
02. 기침이나 재채기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세요.
03. 씻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을 만지지 마십시오.
04.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05. 사람 많은 곳에 방문을 자제하여 주세요.

고위험군

임신부, 65세 이상, 만성질환자*

당뇨병, 심부전, 만성호흡기 질환(천식, 만성폐쇄성질환), 신부전, 암환자 등

01.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 가지 마십시오.
02. 불가피하게 의료기관 방문이나 외출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유증상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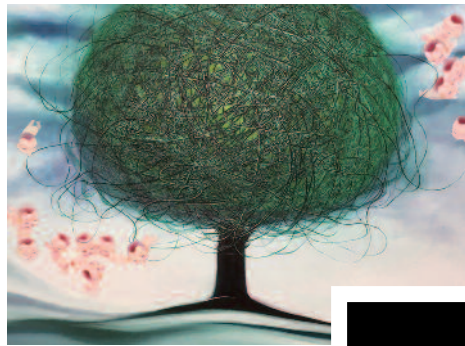
발열이나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이 나타난 사람

01. 등교나 출근을 하지 마시고 외출을 자제해 주십시오.
02.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시고 3~4일 경과를 관찰하여 주십시오.
03.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① 콜센터(☎1339, ☎지역번호+120), 보건소로 문의하거나
② 선별진료소를 우선 방문하여 진료를 받으세요.
04. 의료기관 방문시 자기 차량을 이용하고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05. 진료 의료진에게 해외 여행력 및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를 알려주세요.

국내 코로나19 유행지역

01. 외출 및 타지역 방문을 자제하여 주십시오.
02. 격리자는 의료인, 방역당국의 지시를 철저히 따라 주십시오.

- 출처 및 제공 : 질병관리본부 KCDC



올해의 작가

기증 작품展

